FEB 2 1982

EAST AS[illegible] LIBRARY
UNIVER[illegible] [illegible]NTO LIBRARY
130 St. G[illegible]
8th FLOO[illegible]
TORONTO[illegibl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36 1982년2월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February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온타리오주 개업의 1일씩 파업
토론토 2월17일 총휴진
치료비 인상요구 주정부와 협상중

온타리오주 의사들은 OHIP(온타리오주 의료보험)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2월중 하루를 선택, 번갈아가며 파업할 계획이다.

온타리오 의사협회는 2월9일 램토, 에섹스지역의 휴진으로 시작, 토론토지구 의사들은 2월17일 하루를 쉬면서 OHIP의 진료비인상을 협상키로 했다.

의사들은 이날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술행위를 중단한다.

윌리암·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은 "의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난하면서 현재 주정부와 의사협회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제느·오기페대변인은 정부에게 의사들의 문제가 얼마나심각한것인가를 알려주고싶다고 말했다.

보건성차관 그라함·스코트는 "협상이 진행중인데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것은 의사가 환자를 포로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스코트차관은 온타리오주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년간 8만3천달러나 된다면서 정부는 평균 1만달러정도의 진료비 인상을 제시했으나 의사들은 5만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주장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협상 진전사항과 인상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오는 9일 1차적으로 진료를 거부키로한 에섹스지역 의사회장 마이클·디에트리치씨는 "이번에는 의사들의 주장이 어느때보다 단호하다"고 힘주어말했다.

캐네디안 11명 버스참사
필리핀서 신앙치유길

(마닐라)27일 12명의 캐나다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가 대형버스와 충돌, 폭발하는 바람에 11명의 캐나다인이 즉사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사고버스는 충돌당시 마닐라북쪽 바귀오 휴양도시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생존자 3명중 1명은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허버트·런저씨였다.

필리핀통신 보도에 의하면 사고버스는 충돌후 폭발, 사망자들이 전소돼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여행을 주선한 필리핀여행사의 스티브씨는"이들 캐나다관광객들은 바귀오시에서 신앙의 힘으로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앙치유자인 안토니오·아그파오를 만날 예정이었다."고말했다.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은 사고원인과 사망자명단을 확인중이다.

한국 금리인하정책
기업들의 재정압박완화

(서울 28일=연합) 한국정부는 일반사업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어 악성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리는 단기효과책으로 은행대부, 예금및 배당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재무부 관리는 28일 작년 11월이래 실시된 각종 이자율 인하는 국제적금리 상승추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재무부는 당분간 국제수준보다더 낮은 금리를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이자율은 반드시 국제금리보다 높을 필요가없으며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대외 지불금등 국제수지균형에 미칠 영향은 또 다른 조처로 메꾸어 질 것이다.

국내 이자율은 상품가격인상, 시장조건및 대외지불위치를 고려, 1%한도안에서 융통성있게 변화한다.

정부는 단기재정회사및 증권회사와 같은 제2금융기관들에게도 금리인하 장려를 하고 있어 제1, 제2금융기관사이의 금리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배당금률도 그들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내려진다. 재무부관리에 따르면 이같은 저 배당금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은연례재정보고서를 발표할 때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은18%의 배당금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력부족이 원인
워싱턴 보잉737 추락사고

(워싱턴)지난1월13일 워싱턴 내셔널공항에서 이륙하다 포토맥강에 추락, 78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737기의 사고원인은 비행기가 이륙직후 속력을 줄였기때문에 추진력이 부족, 추락한 것으로 진상조사반이25일 밝혔다.

「블랙박스」라고 불리우는 조종실 녹음테이프를분석한 조사반은 비행기가이륙에 필요한 속력인 시속 144노트에 도달,이륙한 후 계속 속력을 높이지 않고 겨우 147노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반은 비행기가 가속도를 얻지 못한 원인이 비행기 표면에 생긴 얼음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주류판매시간 늘여
아침11시, 일요일밤 11시

고드·위거 온타리오주소비성장관은 새해들어 음식점의 주류판매규정을 변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술을 팔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중에는 정오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밤 10시까지만 술을 팔도록 규정돼 있었다.

소비성은 주중에 일찍점심을 먹는 사람이나 일요일에 늦게 저녁을 사 먹는 사람이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英,실업자 危險水位
1월중순 3백만 突破

(런던)영국의 실업자가 1월중순 현재 정치적으로 위험한선인 3백만명선을 돌파했다고 영국정부가 25일 밝혔다.

영국정부관리들은 실업자가 총3백7만6백21명으로 지난한달 동안에 13만명이 늘었다고 말하고 이는 33년대공황때의 기록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60~89일	14.25%	12.75~13.5%
보통예금 (매일저축)		12½%	12%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개정여권 장기사용가능
—유효기간 만료후도 계속 연장허용

개정 여권법에 따라 지난 정초부터 경신 발급되고 있는 신규 여권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연장하여 장기간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했으며,임시연장이 되더라도 단기간 밖에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게다가 종전의 여권 유효기간은 대부분이 1년 안팎이어서,해외 여행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유효기간 자체가 5년으로 연장되어 있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재발급을 자주 받아야했던 종전의 불편을 덜게 된 것이다.

2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힌 토론토 총영사관측은 "개정 여권이 종전과는 달리 사진을 위조하여 붙일수 없는등,비교적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권의 장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개정 여권의 기간 연장은 계속해서 가능하며,최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주의 행사▷

(2월1일~7일)

◇2월5일(금)~7일(일) 하오7시30분 김형석교수 특별성회
곳 :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연락처 : 482-4577

◇2월5일(금) 하오7시 실학회주최 강좌
연 제 : 1부「복합문화주의」
2부「한인사회진로와 대학생의 역할」
곳 : 온타리오주 교육회관 Room 214

◇2월6일(토) 상오11시 노년회 임시총회및 척사대회
곳 : 한인회강당(20 Mobile Dr.)
연락처 : 755-8079

◇2월7일(일) 하오3시30분 김철 박사 강연회
연 제 : 「술」
곳 : 쌩·폴 성당강당
연락처 : 863-0415(천주교노년회)

◇5살, 6살, 13살, 14살짜리 자녀 4명은 타죽고 부모만 구출된 참혹한 화재가 27일새벽 온타리오주 앳우드 에서 발생했으나 자원소방대원들은 소방수가 부족, 속수무책이었다.

엄마인 엔싱거여사는 잠결에 독한 연기냄새를 맡고 잠을 깨고 보니 리빙·룸이 연기로 꽉 찬 것을 발견, 남편을 깨웠다. 남편 엔싱거씨는 우선 전화로 소방서를 불렀으나 전화가 이미 불통임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깨우러 이층으로 가려고 했으나 층계 역시 연기로 꽉차 올라가지 못했다. 소리를 질러 애들을 불렀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것뿐. 불이 진압된 뒤에 구조반은 2명은 집 앞문 근처에, 2명은 침실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재원인은 장작난로의 과열이었다.

온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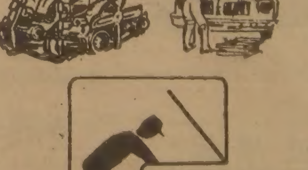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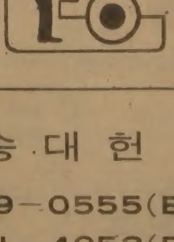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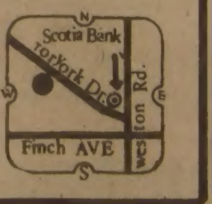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7시30분, 토 : 9시~2시까지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2ND CLASS MAIL NO. 52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1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민간주도 경제주장
유치송 야당당수 정부 비난

(서울 28일=연합) 한국의 제1야당인 한국 민주당 총재 유치송의원은 28일국내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주도경제」를 주창했다.

서울 한민당 당사에서가진 새해 기자회견에서 유총재는 현재 국내경제의침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채 계속적인 고도 경제성장만을 추구한과거의 「정부주도경제」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총재는 정부예산, 재정및 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과감히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무엇보다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농촌지역 구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유총재는 외교루트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중요대외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총재는 또 전대통령의 통일제안에 대한 북한의거절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런던에 한국음식점
전한인회장 정씨 차려

(런던-강상권지국장)약 천명의 인구를 가진 런던의 한국인촌에 최초의 한국음식점 「불고기 House」가 생겼다.

전 런던지구 한인회장정일송씨가 차린 이 음식점은 주류허가도 받아 각종 술도 취급하며, 각종 Credit Card를 사용할 수 있다.

커미셔너로드의 록·우드프라자에 자리한 이 한국음식점에는 캐네디안 손님들도 많이 찾아든다.

주소 : 631 Commissioner's Rd. E. Lon., Ont.
전화 : 519-681-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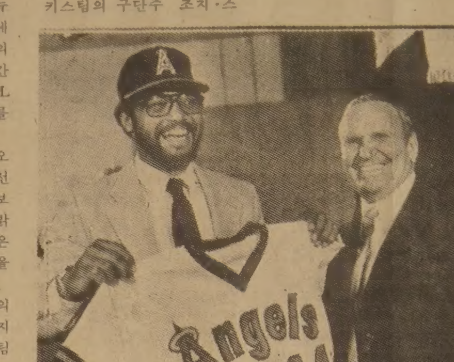
엔젤스에 입단
뉴욕팀강타자 레지·잭슨

(LA지사)미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팀의 강타자 레지·잭슨이 오렌지카운티의 엔젤스팀으로 이적, 4년간의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LA야구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엔젤스팀의 구단주 진오트리는 22일 자유계약 선수 레지·잭슨과 4년간의보증계약에 합의를 봤다고밝히고, 이 기간동안 잭슨은 1백만달러 상당의 연봉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뉴욕 양키스와의 5년계약이 만료되는 레지·잭슨은 그동안 양키스팀에서 58만8천달러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나 최근 양키스팀의 구단주 조지·스타인브레너와 불화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7년 캔사스시티 로열스에 입단하면서 프로야구에 첫발을 내딘 잭슨은 오클랜드 에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등 아메리칸리그 4팀을 거치는 동안 9번이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전에 출전했으며, 이 팀들이 모두 4번이나 월드시리즈에 우승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백남버 44—뉴욕 양키즈에서 캘리포녀 엔젤스로 이적한 홈런왕 레지 잭슨이 27일 엔젤스구단주 진 오트리와 함께 웃고 있다. 잭슨의 유니폼 백남버는 44.

캐나다인의 2/3 혼전경험 찬성
4명중 1명이 섹스로 고민

(레트브리지)캐나다인 4명중의 한명이 성생활로고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레트브리지대학의 사회학자인 렉·비비씨는 1,400명의 성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4명중의 한명이 성문제가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된다고 한 반면 4명중 2명은 성문제로 고민한적이 없다고 답변, 전체적으로 볼 때 돈문제와 시간사용문제 다음에 성문제가고민거리인 것으로 밝혀졌나고 말했다.

이 통계조사가 밝힌 몇가지점은 캐네디언 3명중 2명은 혼전섹스가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4명중 3명은 혼외정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4명중 3명이 동성연애를 잘못된 것으로 믿는다.
● 90%이상이 출산조절에 관한 정보가 이를 알기를 원하는 10대들에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90%이상이 포르노 책이나 필름등의 공급을 금지 혹은 세재할 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믿는다.

◆다이나믹한 두엣—오페라스타, 테너 루치아노·파바로티(오른편)와 가수프랭크·시나트라가 뉴욕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24일밤 2중창을 들려주고 있다. 이날의 컨서트는 암센터를 돕기위한 자선무대였다.

$800만이상 모금
이탤리언 센터 건립기금
주정부도 $420만 보조

지난 17일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 테너가수 루치아노·파바로티가 하버·캐슬 호텔에서 노스욕의 컬럼버스 센터 건축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 15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나아직도 상당액이 부족된 상태이다.

이탈리안-캐네디안 자선협회(Italian Canadian Benevolent Corporation)의 죠·치아페타 회장은 메트로 실행위원회(Metro's Executive Committee)에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요청하는 편지에서 10%이상 오른 건축비와 일반적인경제침체는 본 센타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본 센터를 위해 모아졌어야할 돈은남부이태리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자들을 돕는데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탈리안 코뮤니티와 사회센터인「컬럼버스 센터」는 온타리오정부로부터 42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기부금 형식으로 8백만달러 이상을 모았다.

경제생활과 우리 ⑥
투자상담편 ‖ 담당 강상우(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R.R.S.P. 적립금
증권회사도 취급할 수 있어

★82년도분 RRSP 등록마감일이 3월 1일이므로 먼저 이 부분을 다루어 보겠다.

~ ~ ~ ~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란?

은퇴후 노년의 안정된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혜택중의 하나로 세무성(Revenue Canada)에 등록을 필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은 증권, 보험회사, 은행등이 대행한다.

●R.R.S.P.는왜 인기가 있나?

매년 RRSP에 넣는금액은 자기소득에서 세금의면제를 받으며, 적립된 돈이 얼마로 불어나든 RRSP에 남겨두는 한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은 이 제도에 가입함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시 자기의 소득세율과 적립한 액수에 따라,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는한 상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스토어등 개인영업을 하면서 자금출처에 신경을쓰는 사람은 소득을 정상으로 신고하고, 그 액수에따라 RRSP에 적립하면 적립액수만큼 소득세를 줄일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소득도 공개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돈은 그만큼 늘어난다.

●RRSP에는 매년 얼마나 넣을 수 있나?

①직장은퇴연금이 없는 경우는 매년 $5,500 혹은연소득(이자, 투자소득 제외)의 20%중 더 적은 액수를
②직장은퇴연금이 있는 경우는 매년 $3,500 혹은연소득 20%중 더 적은 액수를 넣을 수 있다.

●RRSP에서 돈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

①해약하면 언제라도 꺼낼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만은 안되고, 꺼낼 경우는 전액을 다 꺼내어 그 해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71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꺼내야 하며, 매달 받는다른 종류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R.R.S.P.를 왜 남에게 관리 시키는가?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

●RRSP의 종류는?

①은행, 보험회사등에 맡겨 그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는 Managed Plan과,
②가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Self-Directed Plan, 두가지가 있다.

Managed의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비싸고, 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난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증권회사를 통해자기가 관리하는 Self-Directed Plan으로 바꿀 수있다.

작년까지는 Self-Directed Plan은 별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이유는 RRSP를 파는 회사들이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수수료도 많은 Managed Plan을 주로 소개한데다가 Self-Directed Plan을 운용하는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RRSP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정부가 지정했음)은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데도 작년 여름까지는 증권회사가 RRSP를 취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Self-Directed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되는 것을 중개자인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거칠경우 가입자의 요구가 그대로반영되기 힘들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 최근부터는 증권회사들도 RRSP를 취급할 수 있게 함과동시에 기존 RRSP를 증권회사로 옮길 수 있게 했다.

RRSP는 한도액 내에서 여러개도 가질 수 있다.

기존 RRSP를 이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Form T2033에 싸인만 하면 종전의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자기관리 RRSP를 갖게되면 가입자는 투자상담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투자결정만 내리면 된다. 이 Plan의 크기(적립된 액수)에 관계없이 1년에 일률적으로 $100를 받으며, 이 비용은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RRSP에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매 연도 말에서 60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므로 작년(81년도)분은 3월 1일까지는 적립돼야 한다.

~ ~ ~ ~ ~

RRSP에 관한 문의는 Merrill Lynch의 Mr.Kang (전화 361-3428)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25)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번역

실지로 이 금기의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는 많은 종교적인 제재처럼 교훈적인 것들이다. 토론라이트로 말하면 부적처럼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 들인데 이들 신은 바렌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효험이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주인 혹은 친구를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는 적극적인 존재일뿐만 아니라 악마와 싸움을 해서 큰 공훈을 세우고 있다.

사만의 혼수상태는 어느 종교에 비추어 봐도 또 어떤 무서운 것을 바라볼때 심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렇게 하자면 최소한의 무언극과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텐트 안에 있는 방바닥에 빙 둘러앉아 있으면 샤만은 북을 갖고 와서 반쯤 감은 눈을 껌벅이며 옛날서부터 사만이 쓰던 주문을 외우며 노래를 부른다. 주위사람들은 북이 울리면 낮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

마침내 북치는소리가 멈추며 샤만이 방바닥에 쓰러지면 몇분동안 방안에는 침묵만 흐른다. 그러면자기의 토른락의 목소리로 말한다. 이상하고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들리지 않는다.

이 혼수 상태에서 깨 어날때 어떤때는 샤만이 매우 난폭해지며 흥분해있다. 그는 펄쩍 뛰어 일어나서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팽장한 힘을 갖는다. 대여섯 사람이 붙들어도 전혀 당해 낼수가 없는 힘으로텐트를 뚫고 나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있다 돌아와서 피를 줄줄흘리고마침내는 피로에 휩싸여 누워버린다.

혼수상태의 사만은 보통인간에게는 치명적이 될수 있는 상처를 자신에게 입히는데 틀림없이 그런상처는 또 쉽게 완쾌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피를 흘리거나 난폭해지지 않고 대개 조용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사람들에게 담담한 목소리로이야기 한다. 만일 동네에문제가 벌어지면 샤만이가서 자기의 토른락이 누군가금기를 따르지 않았다고말한다고 이야기하면 곧 각자들은 고백을 한다. 관련자들은 모두 자신의죄를 고백해서 자기들의 양심에위로를 받는다.

어떤 샤만은 보통이아닌 힘을갖고 태어나는수가 있다. 이런사람중의 하나가 이할미우트로 태어나서 지금은 해변가에 살고있는데 19살이나 20살쯤 되었을것이다. 그는 샤만의 기질이 특출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슴, 늑대, 곰 나가서는해마, 물개들에게까지 최면술을 걸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가끔 그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주문을 외워 귀신을 부르기도 한다.

언제인가 이들 에스키모 동네근처에 개인 무역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그의 상점을 방문했을때 그 무역자는 젊은이의 실력을 의심하고 푸대접을 했다. 화가난 이 젊은이는 눈깜짝할는 사이에 스텔라 폴라리스 합정의 무지하게 큰 뱃머리를 주문을외워붙려들여서 상점의 벽을 산산조각을 내버려 무역자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대오미우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들려준 한 에피소드 였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가꾸미를 통해서 샤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 버리는지 직접 목격한바 있다.

이번에도 어떤 여름날밤에 한 이노귀신이 우리를 찾아왔었는데 이 사건은바렌에서 우리가 가꾸미와다른 이할미우트를 우리 텐트로 불러들여 접대를 해줄때 일어났다. 텐트안에 조용히 둘러앉아 잡담을하고 있을때 가꾸미를 제외한 다른 이할미우트가 갑자기 무엇을 보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침대덮개와 담요 등으로 얼굴을 덮고 수선을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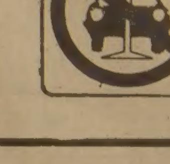
앤디와 나는 이런 급작스러운 그들의 행동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마음의 혼란을 일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가꾸미는 텐트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늙은 개가 늑대가 온 기척을 알고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쏘이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뵐만큼 오들오들 떨고 있어서 우리는 또 귀신이 근처에 와 있구나 하는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처음의 쇼크는 곧 가라앉고 숨어있던 사람들은덮고 있던 것에서 기어 나와 바보들처럼 공포에 쌓여있는것 같았다. 가꾸미는 그들을 자기 주위에 둘러 앉게 만들고 한손을 뻗쳐 한사람씩 무엇이든지 어떤물건을 그 손바닥위에 놓도록 하는데 한중의 담배 총알껍질 혹은 성냥같은 따위였다. 우리는 설탕한줌과 22게이지 총알을 주었다.

(계속)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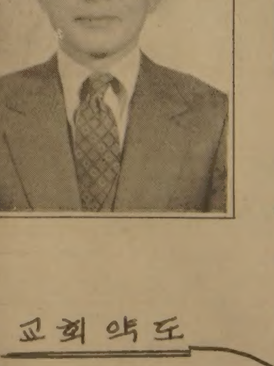
보험으로 보장하며 은행보다 예금이자율이 항상높은 한인신용조합은 각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매주, 매일 본지면을 통하여 속보하여 드리겠읍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예금 이자율표(1982년 1월29일 현재)

예금종류 \ 기관명		토론토한인신용조합 $500이상	토론토한인신용조합 $5,000이상	일반은행 $1,000이상	일반은행 $5,000이상
정기예금	30~59일	14%	14%	12.75%	13.5%
	60~89일	14¼%	14¼%		
보통예금Daily Interest 세빙		12.5%		12%	

1. 저희 조합은 적은돈도 큰 돈과같이 우대합니다.
2. 저희 조합은 $100,000이상에대한 이자는 별도로 Nego우대 합니다.
3. 저희 조합은 일반은행보다 항상 높은 이자를 드리는것이 영업방침입니다.
4. 모든 예금은 법에 의하여 보험이 보장되고 있읍니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
641 A BLOOR ST.W. TEL.533-9387,9388



김형석교수
특별성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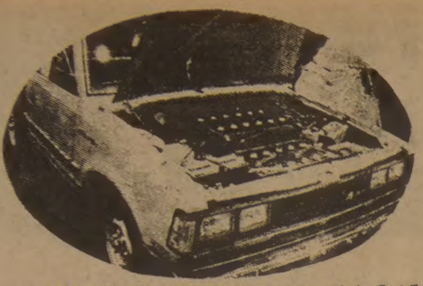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문리대 철학교수
• "영원과 사랑의 對話"외 저서다수
• 라디오, TV, 집회등을 통해 청년신앙지도
• 시카고대, 하바드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연구교수

성회일정
2월 5일(금)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6일(토) 아침 7시: 새벽의 명상
오후 2시: 청년신앙강좌
밤 7시30분: 특별성회
2월 7일(주일) 오후 2시: 주일예배
밤 7시30분: 특별성회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불붙은 自動車컴퓨터化경쟁

消費者자극하는 各社의 新製品을 보면



▲컴퓨터가 자동차에 깊숙히 이용되고 있다. 운전중에 자동으로 분업이되고 오일체인지가 가능한 컴퓨터 자동차가 이미 시중에 나왔다.

GM社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警告부자 울려
포드社 小型도 大型과 같이 안락한쿠션 갖추게
크라이슬러 지켜야할 事項을 肉聲으로 이야기 해줘

현대인의 발인 자동차가 완전 컴퓨터화되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컴퓨터화된 자동차는 단한가지 운전대만은 조종을 못하지만 그외 모든것은 스스로 처리한다.

이미 시중에는 컴퓨터를 이용, 운전중에 자동으로 분업이되고, 오일이 갈아지며, 또한 개스마일리지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변속되고, 단추만 누르면 라디오의 주파수가 바뀌는 자동차가 나와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년내에는 이보다 더욱 발전된 차들이 나온다. 목적지만 대면 가장 빠른길을 안내하는가하면, 운전하다 깜박졸면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또한 거나하게 취해서 방향을 못잡고, 이리저리 헤매면 엔진을 꺼주며, 안개낀 거리에서는 충돌을 막기위해 전광판에 차의 위치를 알려준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돋구기 위해 각회사가 혈안이 돼서 만들어내는 최신형 자동차들은 다음과 같다.

▲크라이슬러-84년모델 자동차에는 운전시 지켜야할 사항을 말로 들려주는 컴퓨터가 달려있다. 이것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사용한 굵직한 남성목소리가 개스를채워라, 안전벨트를 채워라등 8가지 안내사항을 말한뒤 「감사합니다」하며 끝난다. 크라이슬러회사 관계자는 이장치가 보통 라디오가격과 비등하다고 밝히고, 점잖고 예절바른 목소리라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것이라고 장담.

▲제네럴 모터즈(GM)-앞으로 시판될 델코(Delco)모델에 운전사가 차를 불규칙하게 몰면 엔진이 저절로 꺼지는 장치를 부착시킨다. 이 옵션의 가격은 5백달러. 또 한눈을 팔아 자동차가 길옆으로 새면 부자를울려주고,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장치도 부착시킨다고.

▲독일의 다임러 벤츠-물기있는 도로에서 바퀴가 헛돌지 않는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짙은 안개로 운전이 어려울경우 전판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 자기차의 위치를 알수 있도록 했다. 2년안에 시판될 예정.

▲포드-85년까지는 컴퓨터 차대받이장치를 부착시켜, 소형차라도 대형차와 같은 쿠션을 갖게할 방침이다. 이것은 도로의 표면에도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쿠션을 유지한다.

한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들의 컴퓨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GM·포드·크라이슬러-차앞부분에 컴퓨터두뇌를 장치, 엔진의 상태를 늘점검한뒤 필요하면 각종 오일을 체인지 해준다.

▲링컨 컨티넨탈-컴퓨터가 현재 개솔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며, 또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몇마일 남았는지, 언제도착할 것인지, 현재가진 개솔린으로는 몇마일 갈수있는지를 알려준다. 단추만 누르면 라디오 주파수도 골라준다.

▲크라이슬러-고지대에서 달릴경우 컴퓨터 카브레터가 저절로 연소량을 조절시킨다.

▲GM-컴퓨터가 연료와 공기의 배합량을 자동조절, 최고 마일리지와 최저매연방출량을 유지 하도록 한다.

▲캐딜락-운전사가 속도위반을 몇번 했는지 기록한다.

▲토요다-컴퓨터트랜스미션을 이용, 각 속도에따라 연료가 절약될수 있는기아로 자동 변속시켜준다.

한국일보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정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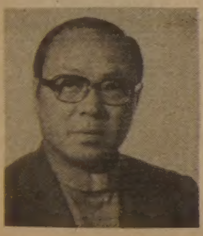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⑤

첫 부임(고삿갓)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고종옥 신부

그날부터 나는 홍도 관구장 신부에게 순명하느냐, 아니면 동족을 위한 이민사목을 위해 수도회를 떠나느냐의 갈래길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동족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수도회를 떠나기에는 나는 수도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 나는 일생을 조국 밖에서 이민족을 위해 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는 조국과 동족이냐, 아니면 수도회냐의 기로점에서 어느 한쪽을부득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어느 하나도 나에게는 귀중했었고,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할 수도 없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나는 이 둘을 다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다. 즉 도밍고회 회원으로서 조국에서동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게해 달라고 주님께 애원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나는 조국과 민족을 선택하기로 했다. 주님께서 나를 한국인으로 예정지어 주신 이상 나는 한국이라는 내 조국과 내 동족을 떠나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님을 위한 사업은 어디에나 있다 하더라도 사제로서의 내 존재성은 조국과 민족을 떠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 인간이면 누구든 차별없이 사랑해야 할 신부이지만 나는 나와 같은 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족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수도회를 떠나기로작정한 내 마음은 마냥 불안하고 괴롭기만 했다.

어느날 나는 이러한 심정을 내 영적 지도신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분은 이것이 일종의 시련일지도 모르니 9일기도를 바치라고 권면했다. 9일기도를 바치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 결정을 존중해 주고, 관구장 신부에게 보고해 주겠노라고 말씀했다.

나는 그분의 지시대로 9일기도에 들어갔다. 매일 성체앞에서 1시간이상 기도를 바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이 9일기도를 끝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동족을 위한 이민사목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것을 내 사제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확고해졌다.

나는 9일기도를 끝내고 내 심경과 결정을 지도신부에게 전했다. 그분은 나를 축복해 주며, 즉시 관구장 신부에게 내 뜻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홍도관구장신부의 호출을 받고나는 모래알로 떠났다. 여느때처럼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그분을 대할 때 내 마음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나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자기도 자리에 앉으며 그분은 입을 열었다.

"태오신부님, 러싸져 신부(나의 지도신부)로 부터 당신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당신을 이 자리로 불렀소."

"…"

나는 할 말이 없어 잠잠히 있었다.

"당신에 관해서 본회 참사위원 신부들과 신중히상의한 바 있소. 한국진출을 결정적으로 포기한 이상지금 당신에게 뭐라고 말 할 수 없으나 당신이 우리 수도회를 떠난다니 섭섭한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구료."

괴로워하는 듯한 그분의 나직한 음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 역시 섭섭한마음 큽니다, 관구장 신부님."

나도 조용히 말씀드렸다.

"요즘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는 신부들의 환속이 없었더라면 한국진출에 대한 본회의 계획은 추진되었을거요. 그럼 한국에 대한 당신의 꿈도 실현 되었을거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현재 우리 수도회 실정으로는 더 이상의 '밋씨옹(전교를 위한 파견)'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니 모든 일이 안타깝기만 하구료…."

"…"

나는 별로 할말이 없어 또 묵묵히 있었다.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우리 수도회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한국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지."

"어느 신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조국과 민족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저에게 조국과 민족이 있기에 저는 신부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저의 이 사제직도 제 조국과 민족 위해 봉사할때 비로소 존재성을 갖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제성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전쟁중 제 조국과 민족이 당하고 있던 그 비극 앞에 이 한 몸을 바치자고 결심한데서였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제 조국과 민족의 고통을 통해 사제직에 대한 제 관심을 깨우쳐 주셨읍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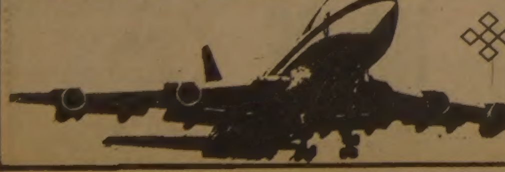
▲ 바하마에서 피한을 즐기는 트뤼도캐나다수상부인. 트뤼도 캐나다수상과 별거중인 마가렛여사가 19일바하마군도 나사우지역에서 캐나다의 TV쇼프로그램「모닝·매거진」녹화도중 망중한을 즐기고있다.

★ 구라파 관광 ★

출발일	1982년 7월 22일
귀환일	1982년 8월 10일
기 간	19박 20일
요 금	$1,550.00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식사(아침17식 저녁12식) 구라파내 지상 및 해상교통 및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안내자
방문지	영국(런던), 화란(암스텔담), 오지리(인스부루크) 이태리(베니스, 로마, 나포리 소리엔토, 카푸리, 플로렌스, 피사), 불란서(니스, 빠리), 스위스(제네바), 몬테칼로, 벨지움(오스텡)
예약마감	1982년4월30일까지 예약금 1인당 $200납부. 단) 취소시는 반환치 않음.
정 원	30명 선착순
기 타	잔액은 5월30일까지 완납.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캐너더 입시 방문자도 가입할수있음.

★ 구라파 캠핑관광 ★

일 시	1982년 8월 2일 ~ 8월 26일
기 간	25 일
가 격	$1,457.00
방 문 국	10개국(영국, 화란, 서독, 스위스, 리첸슈타인, 오지리, 이태리, 바티칸 시, 모나코, 불란서)
가격에 포함된것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조) 관광 및 안내(관광명소 입장료 포함)
추가비용	식사비(1일 3식) US 130.00현지에서 지불, 런던 호텔비(2박) CD 40.00
특 징	대상→남녀 대학생및 청년 야외캠핑 여행 식사는 동행요리사가 조리함. 한국인사회 저명인사 동행(감독자)
신청마감	1982년 4월 30일까지 신청금 $200지불 (취소시 $50은 반환하지 않음), 정원 40명(선착순) 캐나다 여권준비
연 락 처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 Toronto ☎536 - 2155 또는 KUSA(한국대학생회)



❖구라파 여행은
여러분의 신세계로‥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향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大都市 人口억제策 強化

全대통령、어제 企劃院부터 새해業務 報告받아

"通貨增發등「安易」止揚 在來式 市場구조 改善을"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경제기획원을 시발로 중앙각부처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시작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청와대에서 金埈成부총리겸기획원장관과 5명의 관계국장、金周浩 조달청장등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뒤『경제부처는 경제의 어려움을 쉬운방법으로만 극복하려하지말고 모든고통을참고 극복하는자세와 각오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物價 한자리數로 억제…經濟 쉽게弘報"

全대통령은『지난해가을 국내 모든기업들이 한창 어려울때 주장했던 通貨增發이나 與信확대등의 요구를 정부가 단호한 결의를갖고 응해주지 않은끝에 안정기반을 구축하는계기를 마련할수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앞으로는 통화증발과 같은 安易한 대처방안은 아예 검의조차하지 말것』을 당부、경제부처가 時流에 편승하거나 迎合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안정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원칙과 방향에 철저를 기해줄것을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지난해 物價가 12%線으로 억제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이같은 物價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금년에는 物價가 가능하면 한자리數로 안정되도록 힘을 기울여 안정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품질개선、생산성향상、국제收支개선등을 적극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모든 상품의 流通구조、특히 在來式 市場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근대화하고 人口증가와 대도시로의 人口집중을 억제하는 시책을 강화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지난22일 國政연설에서밝힌 전국민의 經濟人化를 거듭강조하고『정부는 경제를 쉽게풀이하는 弘報를 계속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계획보고는 과거와는달리 부총리가 총괄적인 보고를하고 이에 관계국장이 세부계획에대한 보고를 하는順으로 2시간20분간 계속됐으며 劉彰順국무총리、孫守益국무총리行調실장이 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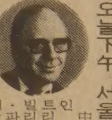
중앙부처에대한 새해업무계획보고는 오는2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全대통령이 金埈成부총리및 關係局長들로부터 企劃院소관업무에 관해 보고를 듣고있다.

各部處別 사업추진 1次 올림픽支援委

정부는 26일하오 중앙청에서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제1차 올림픽支援위원회를 열고 올림픽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는한편 各部處別로 올림픽과관련한 자체사업 계획을마련키로했다.

오스트리아 外相 오늘下午 서울에



中立國 오스트리아의 빌리발트·파르外相(사진)이 盧信永외무장관의초청으로 27일하오7시15분 타이·인터내셔널 항공편으로來韓한다.

파르外相은 3일간의 訪韓기간동안 全斗煥 대통령과 劉彰順국무총리를 예방하고 盧외무장관과 만나 韓오스트리아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한다.

파르外相의 訪韓에는 게오르크·라이슈외무성 경제국장등 8명의수행원과 9명의 오스트리아 기업인이 수행한다.

파르外相일행은 또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예방、양국간의 經協증진방안도 아울러 협의하며 한국종합전시장、板門店등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北傀、統一憲法제의 拒否

副主席 金一 민족念願·國際여론 외면

【서울=聯】北傀는 全斗煥 대통령이 22일 제시한 구체적·체계적·종합적통일意典인「民族 民主和合統一방안」에 관해 4일간의 계속된 침묵을깨고 26일 北傀副主席이며「祖國平和統一위원회」위원장 金一의 이름으로발표된 담화를 통해 민족통일염원의 구체적실현방법이 明示된 이 제의가『어떤 긍정적인 의의를 부여할만한것으로 볼수없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韓半島통일을 염원하는 6천만민족과 국제여론에 또다시 반대하고나섰다.

26일 아침7시부터 15분간 北傀중앙방송과 平壤방송을 통해 낭독된 이「담화」에서 金一은 北傀 金日成이 지난 80년10월 北傀黨 제6차대회에서 들고나온 虛構的이며實現불가능한 僞裝平和책략인 이른바「高麗民主聯邦案」에 대한 합리화선전을 늘어놓으면서 全대통령이 통일의未來像을 체계적으로 제시한「總選民主統一」방안을『현실을 외면한 圖式』云云으로 일괄매도함으로써 이 제의에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했다.

北傀 金一은 또 이 담화에서 分斷조국의 통일이 이뤄지기까지 南北쌍방이 統一을 실현키위한 토대를 구축키위해 쌍방간 民族自害的 비정상적관계를 청산하고 民族自愛的 정상관계로 전환키위한 구체적조처로 제시한 南北韓基本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제의내용에 대해서도『南北분단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영원히 두개국가、두개민족으로 갈라서자는것』云云으로 억지모략비방을 늘어놓았다.

金一은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統一」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駐韓美軍을 철수시켜야하고▲反共정책을 포기해야하고▲국가보안법등과 반공단체를 철폐해야하며▲政治犯들을 석방해야하고▲대한민국 현정부가 이에대해「謝罪」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北傀는 여전히 민족화합에의한 진정한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오직 대한민국의전복에의한 赤化통일을 추구하고있음을 분명히 했다.

"美、한국統一方案 환영"

워커大使 兩國은 樂觀的 정부對정부關係로"

◇워커美大使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는 26일 全斗煥 대통령이 제시한 民族和合 民主統一방안에 대해『평화통일을 위한 건설적인 주도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지난 1·12및 6·5제의와 함께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워커美대사는 이날하오 駐韓미국인부인회가 서울하이야트호텔에서 주최한 月例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연설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한국經濟의 안정적발전에 언급、『지난한햇동안 西歐선진국을 포함한 대다수국가들이 마이너스成長을 보인데 반해 한국은 80년도의 경제적손실을 극복、7%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인플레도半減됐다』고 말했다.

이날「韓美양국간의 몇가지 現實」이라는 제목으로40분간계속된 연설을 통해 워커대사는 韓美두나라가『太平洋세력』임을 강조、『1954년 韓美방위조약이 체결된후 양국은 東아시아를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 방패기능을해왔다』고 지적하고『駐韓美軍과 한국軍의 밀착된日常관계는 미국이 여타지역에서 찾아볼수없는 우호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駐韓美軍의 常駐는단순한 韓美상호 방위조약에만 근거한것이 아니라 과거의경험에 입각한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과거 駐韓美軍의 철수가 金日成으로 하여금 한국動亂을 유발토록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워커대사는 이어 北韓의 군사력은 공산권내의 4位로 한국에 없는 19척의 잠수함을 비롯한 海·空力은 한국의 4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특히 非正規戰을 감행할수있는 北韓 特攻隊의 위력은 세계제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韓美修交1백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양국관계는 樂觀的인 정부對정부관계로 발전했다면서 安保·文化및 정치목적에서 더욱密着관계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특히 제5공화국정부가 이룩한 장기적이고 국내적인 정치안정의 회복과 관련、『헌법의 개정、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수립된 국회는 국민의 總意를 수렴할수있게 됐으며 한국정부는 마침내 활성적인 국제적 협력를 이룩하게 됐다』고 말했다.

「公平한社會」를 추진

不合理한 政治關係法 개정도"

金국민당總裁 年頭회견

◇金국민당총재

金鍾哲 국민당총재는 26일『국민당은 올해의 정치목표를「公平한 사회」건설에 둘것』이라고 전제、『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민주번영을 이룩하기위해서는 온국민의 참여의식提高를통한 민족적인和合과 에너지의활용이 무엇보다先務』라고 말했다.

金총재는 이날상오 중앙당사에서가진 年頭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앞으로 일부정치관계법중 불합리한점이 노출된 국회법、정당법、언론기본법등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추진、정치活性化를 도모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구현과 憲政질서의 유지、공명선거의 보장과 정치풍토개선을위해 각종 선거법에 대한 근본적인 改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全대통령이 밝힌 민주통일방안에대해 이 통일방안이 지극히 현실적이고합리적이며 획기적이었다는 점에서 北韓당국은 하루빨리 받아들일것을 촉구했다.

金총재는『與黨優位論에입각한 정치분위기가 조성될때 로써 정당정치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화합을저해하고 국민들의 정치不信을 초래할우려가 있다』면서 돈안쓰는정치、多黨정치를 표방하고있는 집권당이 먼저 정당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경제문제와관련、특히 우리나라의 外債가 GNP의 절반을 상회하고 매년 外債利子의 償還額이 국방예산과 맞먹는실정에 있음에도 일부特權層의 낭비와 사치풍조가 사라지지 않고있다』고지적、오늘의 경제를 回生시키기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10%정도 감축한 實行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막대한 國公債발행계획을 실행면에서 재검토하는한편▲景氣활성화、국민부담 輕減을위해 과감한 減稅정책과 金利인하정책을 촉구하고▲정부주도경제를 탈피、자유시장 경제를 도모하여 경기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

金총재는 또 쌀값下落방지와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우선 올해 3백50만섬의 外米도입계획을 전면철회、米穀在庫量을 재조정하고 농민、국회、정부대표가 참여하는「米價審議會」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국민당이 제출해놓은「양곡관리법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켜 秋夏穀價의 결정에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北傀、統一憲法거부 民族的비난 못면해

民韓·국민당聲明

民韓·국민당은 26일 北傀가 全斗煥 대통령의 민주통일방안을 거부한데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民韓黨 金炫培 대변인= 北韓당국이 우리의 統一憲法제정제의를 거부한것은 그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아무런 성의가 없음을 또다시 내외에 드러낸것이다. 그들 내부의 복잡한 정치권력간의 暗鬪를 은폐하기위한 이러한 상투적거부태도는 민족적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민당 李成一 대변인= 全대통령의 가장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제의에 대한 北韓측의 부정적인 반응은 南北의평화적통일을 바라는 6천만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로 그들이 아직도 赤化야욕을 버리지못하고 있음을 드러낸이다.

大學입학·등록금 每月分納등 검토

民正黨

李載淳 民正黨대표위원은 26일 대학의 입학금및등록금을 每學期마다 2~3회또는 每月로 分納하는 방안을 검토토록하라고 羅碩昊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그는이날『농촌에서는 1년에두차례씩목돈으로납부하는 자녀들의 학자금마련을 위해 쌀을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출한다』면서『이런현상은 쌀값의 下落을 초래、농민들에게 不利益이 될뿐아니라 일시적으로 통화팽창요인이 되기때문에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있다』고말했다.

李대표위원은『등록금을分納할경우 농가에서는 쌀의일시출하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그밖에도 農外소득으로 학자금을 충당할수있는 장점이있다』고 지적하고『대학등록금이 分納制로 전환될경우 대학이 받게되는 재정압박은 정부융자로 충당하고 대학측은 매월 납부되는 등록금으로 갚아나간다면 대학측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주간女性 (416) 533-2361

社告

本社제정 創作文學·新春文藝·文學번역·出版文化賞 한국4大賞 2월2일施賞式

올해「한국4大賞」시상식이 오는 2월2일(火)하오2시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일보社제정의 각종 文藝관계賞을 종합시상하는 이式典은 해마다 新春문화계의 慶事로서 뜻있는 전통을 이어왔읍니다. 올해로 22년의 연륜을기록한 한국出版文化賞、문단 최고의 권위를 쌓아온 제14회 한국創作文學賞、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을위한 제12회 한국文學翻譯賞、그리고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한 한국新春文藝등의 수상자에대한 치하와격려가 이날시상모임의 내용이될것입니다. 수상자와 수상자의 친지、심사위원、문화계인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本社12층강당서

「한국 4 大賞」수상자

◇제14회 한국創作文學賞=崔一男(쇠치는 오리·세故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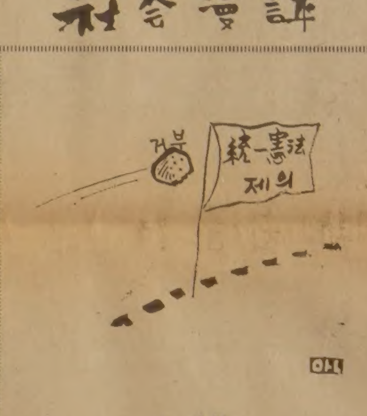
◇1982년도한국新春文藝▲詩=朴守燦(馬夫)▲小說=李麟(母系史)▲時調=서석일(江가에앉아서)▲童話=朴美淑(하늘낚시)▲隨筆=李淑子(겨울이야기)▲戲曲=李炫錫(撞球놀이)

◇제12회 한국文學翻譯賞
▲詩부문=김영진(가작·오른편)▲短篇小說부문=존·홀스타인(당선작·우상의 집) 韓學俊(가작·天地黑白黄)▲長篇小說부문=申鉉松(가작·客地)

◇제22회한국出版文化賞
▲著作賞=李盛雨(韓國食經大典) 許興植(高麗科擧制度史研究)▲創作賞=國民書舘(한국의전래동화)訓民社(빛을남긴사람들) 三省堂(학생대백과사전)高大民族文化研究所(韓國現代文化史大系)知識産業社(謙齋名品帖) 圓光大出版局(補閑集) 서울大出版部(傳唱十二歌詞)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학생과학대사전)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장애자복지편람)陶山文化社(韓國繪畫)啓蒙社(컬러판세계의문학)

한국일보社

社会漫評



그 버릇…

地平線

코넬·우리치의 미스터리소설「한밤의 피」에 끔찍한 대목이 나온다. 서로 뜨거워졌다가 사랑이 식은 남자가 싫증난 여자한테 결혼을 강요받자 칼로 찔러없애는 스토리다. 방안이 피로 얼룩진것을 깨닫자 범인은 완전범죄를 위해 방벽을 페인트로 칠하고 가구는 불살라버린다. ▼담당형사는 범인이 남자라고 육감적으로 느끼나 증거가없다. 한방울의 피만있으면 잡아넣을텐데… 형사가 백시간이나 걸려 방안을 뒤져도 단서가 안나온다. 하나 사람이나 범행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생각한 형사는 결국 꼬투리를 잡게된다. 살인했을때는 전등이 켜져 스위치가 On으로 올라가있을 때고、페인트를칠한것은 스위치가 Off로 될때라는것에 착안한다. 백번이나 조사했지만 언제나 낮에 했기때문에 Off만 보였다가 On으로 불을 켜고 그 스위치에묻은 血痕을 찾아 살인증거로 잡는다는 얘기다.

▼이번朴尙은 血痕이라는 보도에 얼핏「한방울의피」가 생각난 것이다. 먼저번에는 피의자의 齒痕으로 떠들썩하더니 이번엔 血痕이 등장한 셈이다. 육안으로는구별하기 힘들었으나 초정밀검사끝에 朴양의 것과 같은 O형의 혈액이 검출됐다는것이다. 하나 C군가족들은 朴양의 시체가 발견되었을때 양옷에 핏자국이 없었고 3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차에 타고 내렸는데 설사 O형의 血痕이 나왔다고 한들 어찌 朴양의血痕이라고 단정할수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또 O형은 한국사람의 3분의1이나 되는데다 최신연구에 의하면 酵素의 힘을 빌어 시험관안에서 A형 B형이 얼마든지 O형으로 바꿀수있는 세상이고보면 O형하나만으로 범행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血痕檢査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모양이다. 19세기때쓰던 舊式 과야꾸樹脂검사법을거쳐 1904년에 발견된 벤치진검사법은 혈액의 2만～30만배 희석도에서도 양성반응을 보인다. 다만 코넌·도일소설의 셜록·홈즈가 쓰던 이방법은 다른無機化合物이나 果汁에도 반응을보이는 결점이 있다고한다. 이밖에 옥시풀검사법도 있으나 朴양사건에어떤검사를했는지는 분명치않다. 이번사건수사에 검찰에서 두뇌플레이를하고 거짓말탐지기등 科學的 수사방법을쓰느라고 상당히 애를 쓴것은 확실하다. C군의 범행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으나 血痕시비가 또다시 지난번의 齒痕시비처럼 되지는 않을지、두고보아야할일일것 같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791－8196(R)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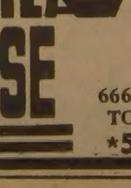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 Ⓟ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필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人權침해 방지 制度化

民正 억울한 刑事被害 다시없게

民正黨은 朴商恩양 被殺사건과 관련, 무고한시민이 被疑者로몰려 고문등 人權침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제도적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被疑사실공표·苛酷행위 處罰法활용"

羅碩昊 정책위의장과 黨정책위산하 法司分委 소속의원들은26일『朴양의 살해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피해를 본 張慶秀군의 경우와같은 人權침해사건은 일반국민에게 드러나지 않았을뿐 非一非再하다』고 지적한뒤『黨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입지않는 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말했다.

羅의장은 특히『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피의사실 공표는 시정돼야한다』면서『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死文化되다시피 한 被疑사실 공표죄와 수사과정의 苛酷행위처벌법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서울市警局長이 張慶秀군의 누명이 벗겨진데 대해 수사과정의 物議를 사과하는것만으로 경찰의 책임이 없어지는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덧붙였다.

法曹人출신인 李漢東·李珍雨·李致浩의원 등은『형사피의자의 무고사건은 상상외로 빈번하다』면서『수사관들이 先入見으로 수사를 하기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가기가 일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일단 경찰에 불려간 혐의자는 자신의 불확실한 기억력과 수사관의 자백강요때문에 하지않은 행위 [illegible]

올해 新規黨員25만명 확보

民韓, 維新殘滓청산 黨勢擴張해로

民韓黨은 올해를 民主회복과 維新殘滓의청산및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黨勢확장의해」로 정하고 이를위해 전국 92개지구당에서 총25만명의 신규당원을확보키로했다.

民韓黨은 26일 전국지구당에 시달한 黨務指針을통해 이같이밝히고 각지구당별로 금년말까지 2천5백명 이상의 [illegible]

崔駐日大使 귀임

崔慶祿駐日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금년도 제1차 在外공관장회의에 참석하고 26일 하오2시 KAL편으로 東京으로 귀임했다. 다른 공관장들은 오는30일께 귀임할 예정이다.

도미니카 外相일행 오는2일 公式訪韓

政策委 分委別로 民正, 세미나開催

"北傀는 흔쾌히 對話응하라"

各界, 統一方案지지聲明 잇달아

對話 두려운 北傀

또한번 虛構性 드러내

「統一헌법」제의 4일만에 拒否…內幕

自由물결 들어오면 世襲무너질까 겁내

최악의 經濟사태 弱點도

【河長春기자】

한국의 民主主義승리 확신

英 더·타임즈 「統一憲法」 긍정적 評價

"과대망상증 強한 金日成 希望의불꽃 좌절로 초조"

內外動靜

社說

統一提議拒否는 못난짓

—北韓측은 언젠가 屈하고 말것이다

全斗煥 대통령이 지난 22일 國政演說을 통해 제시했던 「民族民主和合統一方案」에 대해 北韓은 나흘만인 26일상오 그들의 「副主席」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金一의 「談話」로써 拒否한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北韓當局이 우리의 1·12提議나 6·5提議에 대해선 公式經路를 통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반응표시는 새 統一方案에 대한 內外의 환영표명과 支持輿論때문에 北韓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증좌같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의 民族和合, 그리고統一憲法制定提議에 대해 國內에서는 물론 海外 여러나라에서도 가장 合理的인 統一方案이며 具體的이고 또 實現可能한, 웅대한 통일설계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25일까지만해도 美國을 비롯하여 日本, 英國, 프랑스, 西獨,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등 71개에 달하는 友邦과 第3世界국가들이 이 새 統一提議를 적극 支持하고 나섰다고 外務當局은 발표하였다. 지금 국제여론은 우리의 提議를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北韓이 긍정적인 자세로 이것을 수락할것과 하루속히 南北間의 對話가 再開되어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해소하며 韓民族의 統一이 성취될것을 아울러 희망하고 있다.

北韓의 「拒否」 이유를 보면 우리 提案이 『現實을외면한 圖式』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상투적으로 駐韓美軍철수, 反共政策포기, 정치범의 석방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트집잡고 있다.

北韓이 무엇을 가리켜 우리측 統一方案이 現實을 外面하고 있다고 우기려드는지는 알수없으나 우리 「現實」은 民族과 國土가 兩斷되어 있고 이런 分斷이 民族和合을 저해하며 따라서 民族的自害가 거듭되어 왔다는 이 엄연한 事實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認識했을때 우리의 이 統一方案은 무엇보다도 먼저 「民族大和合」을 이루자는데서 出發하고 있다는 點에서 가장 現實的인 提議라는데에 모두 同意할 것이다.

民族의 和合은 쌍방의 政治的理念이나 社會的體制의 差異를 「民族」에 대한 融和의 정신으로써 극복했을때 이루어진다. 또 獨善的인 敎條에서 탈피하고 참되게 民族的紐帶意識을 소생시키는데서만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外部세계에서 「現實的인」案이라고 찬성하고 있는데도 分斷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있는 같은 처지의 民族이 民族大和合 호소를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는데는 이해가 가지않는다.

우리의 統一方案은 統一이 成就되는날까지 統一의 大業을 南北의 民族이 함께 參與하여 밀고나가자고 提議하고 있다. 民族統一協議會議가 일단 구성되면 統一憲法이 制定될때까지 南北이 [illegible] 協議하게된다. 우리의 統一提案은 어디까지나 統一指向的이다. 이와함께 統一되기까지 南北의 梗塞된 상황을 타개하자고 남북간 基本關係에대한 暫定協定체결을 요구하고있어 現實打開的이다. 따라서 우리의 提議야말로 가장 「現實的인 統一에의 설계」라고 말할수있다.

北韓측이 이 提議를 거부하고 나선데는 오히려 우리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北韓의 現實이 打破되는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北韓이 對話의 문을 열었을때 그쪽의 現體制가 파탄에 직면하고 「世界서 지탄되는 非民主的인 世襲王朝」가 붕괴될것이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赤化革命方式에 의해 「統一」을 이루겠다는 책략을 버리지 않은데 그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提議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安保태세와 내부체제를 트집잡고 나온것이 바로 이런 北韓의 흉흉한 저의를 반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北韓에서 의거 귀순해온 한근로자의 증언을 통해 北韓의 住民이 「10등급」으로 분류되어 심한차별대우를 받고있고 남침준비를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중이라고 들었다. 이증언으로도 北韓이 우리제의를 拒否하고 나오리라는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北韓이 民族의 차별이나 분열을 지양하고 民族和合을 이룩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리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정부 弘報당국은 北韓의 이번 거부에 구애말고 對北說得과 외부세계의 여론환기를위해 꾸준히 대대적·적극적 活動을 벌여가야하리라고 생각한다. 北韓이 우리의統一에의 念願과 意志, 그리고 方案에 끝내는 호응하게 된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것이 民族和合을 이룩하려는 우리로서 견지해야할 기본자세일 것이다.

官民合心으로 効率크게

—새해經濟運用에 거는 國民의 關心

經濟企劃院長官은 26일 올해의 경제운용계획을中心으로 全斗煥 大統領에게 보고하였다. 主務局長도 나선 보고내용은①창단기경제운용의 효율화 ②公正去來제도의 발전 ③예산개혁의 추진및 ④국가통계업무의 발전으로 大別된다.

금년의 경제운용계획은 지난12월16일 前任長官당시에 일차적으로 밝혀진바 있었다. 당시의 발표 내용은 경제성장률 7%내외, 경상국제수지적자폭 44억달러, 물가상승률 10~14%를 골자로 하는것이었다.

그뒤 內閣改編이 있었고 이어서 1·14조치로 活性化대책이 수립된이래 보안조치들과 함께 시행중에 있는것이다.

새로세운 物價등귀수준은 다시 더 낮게 잡아 10%내외를 목표로 삼기에 이른것이다.

이번에 보고된것중 특기할것은 5년계획의 한해가 지나가면 그 지난해의 실적과 경험에 비추어 새해이후의 계획을 더욱 합리적으로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동시에 다시 한해를 추가하여 언제나 當年이후의 계획기간이 5년이 되게하는 連動化계획(Rolling Plan)을 추진할것이라는 대목이다. 이 구상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과得失을 따질수 있겠지만 그 長短點의 효율을 높이기위한것으로 이해하고자한다.

또 보고는 경제시책과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대화·행정공개·홍보를 중요시할것임을 밝혔다. 물가수급대책을 더욱 완벽하게하며 유통구조개선·소비자보호강화·公正去來제도보완 및 그 운영강화에 주력할것이라고 하였다.

예산개혁을 통하여 國庫金의 낭비·비효율적요소를 제거하기위한 제반방안을 세우고 「금년도중에는 실행예산편성으로 1천5백억원을 절약하며 국가통계업무를 개선·발전케한다는것」을 주요과제로 삼을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정부나 국민이 목표로 삼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물가를 적정수준에서 安定化하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는 기반을 굳건히 마련하는것을 내용으로 한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되, 그 과정에서 輸入수요를 지나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늘리는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 기업의 在庫가 필요이상 늘어나지 않게하기 위한 活路로서 수출을 증가하며 투자와 소비를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실천과정은 全大統領이 통화증발등 안이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쉽게만 극복하지말고 고통속에서 참고 극복하라는데서도 실감하듯이 企業의 창의·의욕 및 勞使관계의 平和로운 발전등 어렵고 [illegible] 노력을 바탕으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고서도 자칫하면 기대했던대로의 성과를 올리지못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늘 염려하여온 油價를 비롯한 必需輸入品가격의 동태가 매우 큰 비중으로 變數要因구실을 하고, 아울러 우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輸入門戶개방정도여하가 또한 만만치않은 비중으로 국민경제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정부의 역할도 무시할수없는 정도로 경제발전을 좌우한다. 재정의 역할면에서 그러하며 행정권이 국민경제에 간여하고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내용여하에 따라서도 무시할수없는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그렇다.

경제기획원이 全大統領에게 보고한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그러한 정부의 막중한 역할을 의식하고 작성된것임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간의 보도를 통하여 밝혀진것을 보면 民間부문에서는 아직도 정부에 대하여 더 많고 厚한것을 기대하고 있는것같다.

[illegible] 당국자들은 민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정부가 확신하는 바를 民間도 [illegible] 이해할수있도록 더욱 對話폭을 강화하여 [illegible]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政局往來

한分野서만있으면 視野좁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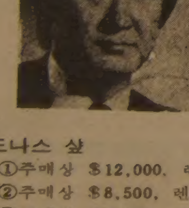
가난은 참아도 不公平은못참아

◆相對黨회견 김빼려는 會見안해

◆民韓黨·組織5倍加운동 시달

"實務局長직접報告로 所信·責任갖고 일하게 하기위한것"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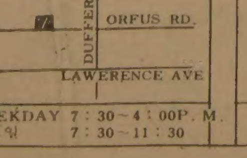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월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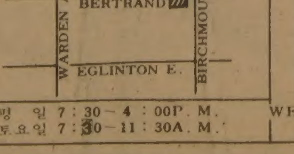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놓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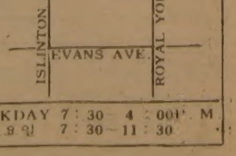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표지 또는 그래그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움·존


평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찰리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中東戰 再發가능성"

NYT紙 군사력均衡 심층分析보도

◇蘇·체코·헝가리 3國 합동訓鍊　25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막이오른 蘇聯 체코 헝가리 3국간의 「우정82」육·공합동훈련에서 군인들이 부교를 설치하고있다. 【프라하25日AP電送=聯合】

이、1週內에 勝戰능력

이집트의 아랍陣營 가담이 큰變數

【워싱턴25日AP=聯合】中東지역에 또한차례의 전쟁이 예상되며 이스라엘은 이전쟁에서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아랍국가들을 전쟁발발 일주일안에 패배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2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紙는 이날 中東군사력균형에 대한 심층분석기사에서 그와같이 보도하고 이스라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우세를 믿고 있으며 또한차례의 전쟁가능성도 의심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이 새전쟁도 육군 14개사단·탱크3천5백대와 6백대의 전투기를 갖춰 전력이 우세한 이스라엘의 先制공격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군사력우위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적대진영인 아랍세계에 다시 가담할 경우,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집트를 아랍진영에 복귀시키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과 비밀접촉을 해오고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臺灣、6개월내 核彈제조 가능

【워싱턴25日UPI=聯合】臺灣당국은 6개월이내에 소량의핵무기들을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있다고 미국의 칼럼니스트 잭·앤더슨씨가 25일자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앤더슨씨는 이날 美국방성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그와같이 밝혔으나 미국과 중공의 반응을 의식하고있는 臺灣이 핵무기생산을 실제로시작할지의 여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美·埃中東안보관련 합동軍事委설치

【카이로26日UPI=聯合】미국과 이집트는 중동안보에 대한 위협, 미국의 대이집트 무기공급, 합동훈련계획등을 인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합동군사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이집트군참모총장 압델·하페즈장군이 26일 밝혔다.

西獨、蘇에 가스管 제공

한네스만社 백20만톤 供給계약

【뒤셀도르프26日AP=聯合】서독의 한네스만社는 25일 소련에 천연가스공급파이프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발표는 歐共體(EC)외상들이 폴란드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취할 유럽의 對蘇무역제한방안을 논의한 직후 나온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회사대변인은 계약에 따라 금년과 내년중 소련에 모두 1백20만톤의 파이프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하고 소련이 진행중인 시베리아천연가스공급라인건설공사에 쓰일수 있는 직경1백42㎝의 이대형파이프들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구매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22일 에너지源 다양화를위한 방안의하나로 오는84년부터 25년간 소련으로부터 매년 8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는데 미국은 이를 신랄히 비난하고있다.

소련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위해 유럽국들과의 이같은 계약체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波、계엄 내달까지 解除

야루젤스키 不法활동終熄등 사태보아"

【바르샤바25日AP=聯合】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救國評議會의장은 25일 군사계엄당국에 대한 불법활동과저항이 종식되는등 국내사태가 호전된다면 오는 2월말까지 계엄조치를『점차적으로 해제』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黨제1서기와 수상도 겸하고 있는 야루젤스키의장은 이날 계엄령선포이후 처음 소집된 폴란드의회에서 행한연설을 통해 지난해 12월13일 선포된 계엄령은『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기를희망한다』면서『국내제반여건의 발전상황에 따라 2월말까지는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야루젤스키는 또한 계엄령 해제에 앞서 계엄령에 따른 일부제한조치들을 크게 완화할것이며 불법활동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모든 제약 조치들을 완전히해제할용의마저있다고 말했다.

관련자全員에 有罪판결

東京地法、다나까收賂사건관련

【東京26日=宋孝彬특파원】동경지방법원은 26일 다나까(田中) 전수상을 물러나게한 록히드사건중 전일본공(全日空)과 관련된 와까사·도꾸지(若狹得治·67·전일본항공사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는등 관련자 6명에게 전원유죄판결을 내렸다.

동경지법은 지난해11월 오사노(小佐野賢治·67)에게 징역1년의 실형선고를 한데 이어 두번째로 록히드사건에 관련된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다나까전수상은 록히드재판서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되며 유죄판결이 내릴 경우 집권自民黨의 정치적인 향배에 미묘한 파급효과를 미칠것이다.

EEC外相합의

對波 농산물 割引販賣 중단
對蘇 수출 借款金利도 引上

【브뤼셀25日UPI=聯合】歐共市(EEC) 10개국외상들은 24일 폴란드문제와 관련, 폴란드와 소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對폴란드농산물 할인판매를 중단하고▲장차 식품원조를 비정부기관을통한 폴란드국민들에대한 직접적인 구호로 제한하고 ▲對蘇수출차관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소식통들은 EEC외상들이 이날 비공식회의에서 對 폴란드농산물판매가격 15%할인을 중지하고 할인판매 중단으로 남게된 기금을 비정부기관을 통한 폴란드국민들에대한 직접구호활동에 사용하라는 한 집행위원회의 제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EEC는 EEC예산 9천1백만달러를 투입하여 육류·곡물·버터등 농산품을 세계시장 가격보다 15% 할인해서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었는데 EEC집행위원회는지난주 폴란드가 더이상 국제차관을 도입할수없으며 계엄령선포이후 국내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할인판매제도를 변경하도록 제의했었다.

회의소식통들은 또 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해 국제수출차관제공시 蘇聯에 적용하는 급수를 현재의 2급에서 선진국수준인 1급으로 상향조정할것을제의할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 年頭敎書 오늘上午에 발표

【워싱턴25日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27일 상오11시(한국시간) 上下양원합동회의에서 전국에 TV와 라디오로 중계되는 가운데 연두교서를 발표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주로 국내경제문제에초점을 맞출것으로보이는데 워싱턴관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州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이른바 『新연방주의』를 제창할것으로 보고있다.

시리아서 50명처형 쿠데타관련 軍將校

【베이루트25日AP=聯合】50명의 시리아軍장교가 최근 不發로 그친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처형됐다고 레바논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레바논방송은 또 蘇聯군사고문 1백여명의 가족들이 출국을 요구하는 회교형제단의 최후통첩을 받고 시리아를 떠났다고 말했다.

시나이返還앞둔 和解布石

―이집트、對蘇·아랍強硬國 解氷움직임의 背景

國際焦点

◇소련및 강경아랍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있는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왼편)이 연초 카이로를 방문한 헤이그美국무장관과 만나 중동평화문제를 논의하고있다.

經協통한 關係개선 모색
「사다트路線」포기완 無關
이스라엘 感情자극…새로운 불씨막는데 神經

무바라크 대통령의 이집트가 최근 보인 소련및 아랍강경국들과의 관계개선움직임은 오는 4월25일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를 앞두고 중동평화에 새로운 변수로등장하고있다.

이집트의 카말·하산·알리외상은 24일 지난해 9월 이집트가 추방한 1천명의 소련기술자들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66명을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독의 DPA통신도 이집트와소련이 수주내 상호대사를 교환하며 대사관직원을 증원한다고보도해 두나라관계의 해빙조짐을 뒷받침했다.

이집트의 국내 언론들도 이집트의 통상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할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특히 관영 알·아랍지는 지난23일 대소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는 소련수상티호노프의 서신을 보도하여 양국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소관계 해빙움직임과 함께 무바라크정권에 협력을 약속한 좌파의 민족혁신연합(NPVP)당수 모헤딘은 연초 알제리에서 가다피리비아국가원수와만났으며 오는2월 다마스커스를 방문, 시리아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당국자와 만나 관계개선문제를 협의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취임4개월째를 맞는 무바라크는 대내적으로는 청적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사다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지금까지 사다트노선을 충실히 지켜왔다.

무바라크는 1월초 사다트가 임명한 재무, 관광, 농업상등 9명의 경제각료를 경질하고 경제재건과 부패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그러나 알리외상등 외교관계 각료는 모두 유임시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은 엿보이지 않았다.

이집트가 소련기술자를 일부나마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것은 바로 경제협력을 앞세워 정치적해빙까지 연결하려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새로 파견된 소련기술자들은 이집트의 전력원인 소련이건설한 애스원댐의 터빈2기 보수공사를 맡는한편 산업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집트가 취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곧 급작스러운대외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는 우선 4월25일까지로 예정된 시나이반도의 이스라엘군 철수라는 목전의 이익을 얻어내야만 한다.

시나이반도 철수를 앞두고 가뜩이나 불안해하고있는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이라크의 원전폭격이나 골란고원합병같은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행동을 불러 중동사태를 악화시키고 시나이반도철수에 영향을 받을일은 원치않고있다.

다만 무바라크는 취임초부터 소련및 아랍국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분명히해왔기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은 시나이반도 철수이후를 겨냥한 무바라크의 조심스러운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申相碩기자】

美國人들의 對日本觀 변하고 있다

海外토픽

「민첩한 호랑이」로 부터 「허영심 많은 공작새」로
日人의 對美「힘센사자」觀은 不變

일본인의 미국관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으나 미국인의 일본관은 변하고있음이 양국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근 여론조사에따르면 지난11년간 일본인의 미국관은 한결같이 힘세고 강한 맹수의왕 사자의 이미지로 비쳤음에반해 미국인의 일본관은 「민첩한 호랑이」로부터「허영심많고 화려한 공작새」의 이미지로 변했다.

여론조사는 일본산께이(産經)신문과 자매회사인 후지TV가 공동주관,지난1970년 이래 매년 실시해온것으로 미국인의 경우는 갤럽이 의뢰받아 조사했다.

동물들은 사자, 호랑이, 조류, 곤충, 설치류등 이중 상대국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국의 이미지로 적합하다고 여기는것을 한가지씩 택하게 했다. 미국인들의 경우 응답자중 가장많은 29%가 공작새를 두번째로 많은 23%가 호랑이로 일본인을 비유했다. 나머지는 개미, 쥐, 원숭이, 코끼리등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는 지난70년대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의식과는 다른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의 이미지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중 가장 많은수인 약30%가 일본인을 호랑이처럼 강하고 민첩한 국민으로 표현했었다.

한편 일본인의 경우는 가장 많은 54%가 미국인을 사자에 비유했으며 나머지는호랑이(32%) 코끼리(25%) 여우(22%) 쥐(3%) 개미(2%)순이었다.

그밖에 이번 조사결과 일본인의 외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이 37.1%로 으뜸을 차지했고 중공이 15.7%로 그다음이었다. 소련은 0.4%로 호감도가 낮았다. 【로스앤젤레스支社】

日、새에너지源개발

★석탄·原油혼합에 성공

일본은 세계최초로 원유와 석탄을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성공, 심화된 석유의존도를 낮출수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자원에너지청 한 관계자는 25일 이 에너지청이 원유와 석탄분말을 50대50의 비율로 혼합한 획기적인 액체에너지원을 개발해냈다고 밝히고 현재 몇몇 회사들과 이의 상업적 사용을위한 절차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東京=AP】

◇放射能 누출사고빚은 美原電　방사능 누출사고로 폐쇄된 美뉴욕주 온테리오소재 지너·핵 발전소의야경。보안관이 자동차를정지시켜 발전소근처로 가지못하도록 저지하고있다. 【온테리오25日AP電送=聯合】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해 명 서

1 월25일자(22일 금요일 배부) 코리아 타임즈 토론토에 전면광고로 해명을 요구한 시내 3 개식품점(삼복,한밭, 서울)과 광고도 신문에 게재가 된 후에는 기사와 동등한 성격을 갖는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문사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략적인 광고를 실어주신 한국일보에 아래같이 해명합니다.

問1. PAN ASIA ROSE RICE(장미표 쌀) 한자루에 3불씩 이익을 남긴것을 한인회나 교포사회에 반환할 수 없느냐는 건에 대해……

答: 시내 6 개 상점에서 저희쌀을 판매하는 레귤러 프라이즈 보다 더 비싼 값에 스페샬 세일을 한 당신들은 얼마의 이익을 남겼으며 어데다 반환하시겠읍니까? (한국일보 18일자 삼복식품광고참조)

연말연시를 기해 생산지 미국에서 쌀 1 백파운드 당 약 6 불씩 쌀값이 내린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이며 당신들이 가장많이 팔고 있는 국보쌀은 아직도 내리지를 않았는데 현재 얼마에 판매하고 계십니까?

저는 PAN ASIA ROSE RICE(장미표)를 창업이래 지금까지 그 국보쌀보다 4 불내지 6 불씩(1월27일현재 8 불) 싸게 도매를 했으며 또 4 불내지 7 불(1 월27일현재 8 불)싸게 소매를 하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저희 쌀이 여기서 적으나마 시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처럼 품질과 가격을 보장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지하며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신조는 품질과 가격보증, 박리다매 그리고 정직하고 친절한 써비스입니다. 이와같은 신조는 영원히 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쌀은 물론이요 어느상품이던 많은 다른경쟁 도매업자보다 약 5～10%를 싸게 공급해 왔으며 그 실예로 81년11월 햅쌀이 나온후 당신들이 일 회사에서 44파운드에 21불20에 공급 받을 때 우리는 50파운드에 20불95에 공급한 서류가 모두 보관중이며 또 소매도 누구보다도 싸게 팔았거나 같은 값에 판매를 해왔다는 것은 교포들이 다 알고 계신 사실이며 그 증거는 그동안 토론토에서만도 14개의 한국식료품을 판매하던 상점이 전업, 폐업 또는 파산선고를 했으며 4 개의 상점이 주인이 3 번씩이나 바뀌었던 것은 이익이 없어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생긴것이지 이익이 많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주인은 바뀌었어도 상점은 남아 있을것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이야기 한대로 폭리는 커녕 우리가 모든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 24명이나 되는 동업자가 동 업계를 먼저 떠나 셨다면 제일 오랫동안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유경쟁 사회라고는 하지만 동 업자끼리 너무치열한 가격경쟁을 해온 것은 물건을 조금 싸게 구입하실 수 있었던 교포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결코 자랑스러운 일을 못된다고 생각하고있읍니다.

問2. 고국상품애용을 부르짖는 자가 중국, 일본상점에는 공급을 하면서 옆에있는 상점에는 왜 공급을 안하느냐는 건에 대해――

答: PAN ASIA FOOD CO. LTD. 는 봉사나 자선단체가 아니며 수출입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회사 입니다. 어느나라 어느회사 어느사람이든 간에 상거래상 필요한 모든 조건만 구비되면 거래를하는 것이 무역이며 그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옆의 상점에 개업부터 수년간100 %저희 물건을 공급한 사실은 그 근거 서류를 저희회사가 영구 보관중입니다.

問3. 당신들이 새로 들여온 D.Y. 가주미가 무서워서 운운……한 건에 대해――

答: 장사를 하고계신 당신들은 까맣게 잊었는지 모르나 이곳에 오래 살으신 많은 교포들이그 쌀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다. 약 4 년전 바더스트 스트릿트에 있던 동양식품점에서 수입하여 오랫동안 판매하여 시장개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했었고 그후 제인 스트릿트에 있는 D.Y. FOOD 에서 다시 수입하여 약 3 년간 취급했던 쌀이 그 쌀 그 부랜드입니다.

가격때문에? 아니면 품질 때문에? 하여튼 이곳에 자리를 잡지 못한채 그 D.Y.FOOD 를 80년11월 새주인이 가게를 인수 받으신 후 지하실에 쌓여있던 그 쌀처리 때문에 6 개월간 고생하신것 등등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으며 세번째 이 땅에온 그 쌀이 이번에는 가격 품질등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무니 없이 모략하는 광고로 교민사회의 인심을 교란시켜 상대방 사업에 피해를주고자 하는것 같은 저속한 질문 3 가지에 대강의 답은 된것으로 알겠읍니다.

재미없는 사건이 지상을 통해 논하게 된점을 교민여러분께 죄송함을 진심으로 금치 못하오나 현혹되시는 일 없이 분명한 판단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하여 보다 더 좋은 상품을 보다더 좋은 값에 공급해 드릴 것을 교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982. 1. 29.

*PAN ASIA FOOD　대표 이 창 복
*BARTON PREMIUM FOOD MARKET INC.
(한국식품본점)　대표 이 민 복
*SUNNY ORIENTAL SHOPPE
(한국식품서부)　대표 서 춘 원
*P.A.T.SUPER MARKET　대표 김 흥 우
(한국식품동부)　이 순 복

「올해의 가장 尊敬받는 男女 20명」

美女性誌「굿·하우스키핑」讀者투표로 選定

女性

1位 테레사修女는「성스런 女性」평가
2位 낸시·레이건은 知的이며 밝은性格
4位 패트·닉슨은 70年이래12년랭킹에

◇가장존경받는여성 10명 ①마더·테레사②낸시·레이건③다이애너④패트·닉슨⑤캐롤·버네트 ⑥캐더린·헵번⑦비버리·실즈 ⑧필리스·슐라플리 ⑨베티·포드⑩에마·봄베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女性誌의 하나인 「굿 하우스키핑」은 해마다 여성독자들의 투표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을 선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가장존경받는 올해의 남성」을 함께 뽑았는데 미국여성들의 마음을 끌고있는 男·女 20명은 누구인지 알아본다.

올해의女性 10명가운데 1위를 차지한 여성은 마더·테레사. 노벨평화상수상자이기도한 마더·테레사는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힘든 성스러운 여성』으로 첫자리에 꼽혔다. 캘커타에서 빈민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수녀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2위는퍼스트 레이디 낸시·레이건. 낸시·레이건은 『퍼스트레이디답게 지적이며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끈다』는 평가를받았다. 다이애너황태자비는 『로맨티시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환상적인사랑의이야기를 다시들려준 여성』으로 3위에올랐다. 4위로뽑힌 前 퍼스트레이디 패트·닉슨은 지난 70년이후 12년간 줄곧 「존경받는여성」으로뽑혀온 「굿 하우스키핑」독자들의 「가장 사랑받는여성」인데 독자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패트·닉슨이야말로 여성의진정한 기품과성실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인물이기 때문』이다.

가수 캐롤·버네트는 처음으로 올해의 여성으로 뽑혀 5위에 올랐다. 캐롤·버네트는 마약사건에 관계된 자기딸의 문제를 솔직하게 해결해나간 용기와 현명함으로 여성들의 칭찬을 들었다. 6위에 오른 여배우 캐더린·헵번도 7년간 계속해서 뽑혀온 인기높은 여성인데 여성투표자들은 그를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살고있는 용기와 지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물』로 평가한다. 7위로 꼽힌 오페라가수이며 뉴욕·시티·오페라좌의 감독인 비버리·실즈도 캐롤·버네트처럼 불구로 태어난 자기의 아이의 문제를 솔직하고 현명하게 처리해나가는 용기로 존경을받고있다.

미국의 남녀동등권법안의 유일한 반대자인 필리스·슐라플리는 『반대의 자리에 설수있는용기』로 8위에 뽑혔다. 前 퍼스트레이디인 베티·포드는 『정직한 여성, 밝고 구김없는 다정한 여성』으로 9위에 올랐고, 유머리스트이며 작가이고 또한 TV사회자인 에마·봄베크도 『밝고유쾌한여성』으로 10위에올랐다.

남성은 勇氣있고 賢明한 사람

1位 레이건… 獨立心강한 指導者로
2位 앨런·앨더는「女性편에 서줘」

『올해의 남성 10명』의 첫자리는 현 대통령인 로널드·레이건이 차지했다. 독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뽑은 이유를 『용기있고 독립심이 강한 지도자』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위는 영화배우 앨런·앨더. 『매슈』에 나왔던 배우로, 『남녀동등권의지지자이며 진심으로 여성의 편에 서주는 인물이기 때문에』선정됐다.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3위에, 빌리·그레이엄목사는 4위에 뽑혔다. 바오로교황과 그레이엄목사는『존경할만한 유능한 종교인들』로 평가됐다.

5위는 지난해 암살당한 안와르·사다트 前이집트대통령. 봅·호프는 6위, TV사회자 필·도나휴는 7위로 뽑혔다. 이들 두 사람은 『선량하고 유쾌한 성품으로 소박한 인간미를 느끼게한다』고 평가됐다. 8위에 오른 TV앵커맨 월터·크론카이트는 『자신만만한 태도, 완벽한 知性을 갖추고있는 인물』이란 평을 얻었다. 찰즈황태자는 9위에 올랐는데 다이애너비와 마찬가지로『현대로맨티시즘의 주인공』이란 평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낯선 제리·팔웰목사가 10위에 올라있다.

『올해의 여성 10명』이외에 로절린·카터가 12위, 마거릿·대처수상이 14위, 제인·폰더가 16위에 올랐다. 남성가운데는 지미·카터 前 대통령이 11위, 배우로버트·레드포드가 14위, 바이얼리니스트 이차크·펄먼이 15위, 배우 버트·레널즈가 16위, 테너 루치아노·파바로티가 17위에 뽑혔다.

이 조사를 실시한 「굿 하우스키핑」지는 『이상의 투표결과로보아 미국여성들은 대체로 용기있고 현명한 인물, 소박한 성품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인물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평하고있다.

◇가장존경받는 남성 10명。①로널드·레이건②앨런·앨더③요한·바오로④빌리·그레이엄⑤사다트⑥봅·호프⑦필·도나휴⑧월터·크론카이트。

新婚여행

나의 이력서 元一漢 ⑩

〈題字·元一漢〉

萬里長城관광…北京으로 떠나

아내 존·비다·데이비슨은 결혼후 장로교로 개종했지만 결혼식만은 성공회대성당에서 거행했다. 우리는 北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한국에 와있는 선교사들은 동양에온김에 北京을 방문하고 만리장성을 한번 구경하기를 바랐다. 서울에서 北京행 직행열차시간은 새벽2시였다. 1941년7월10일 첫날밤을 조선호텔에서 어정쩡하게 보낸 우리는 기차시간에 맞춰 서울역으로 나가기에 바빴다. 열차에 올라보니 우리좌석에 다른사람이 많이 있었다. 알아보니 北京행직행열차는 1시간이나 연착됐다는 것이다. 이때 벌써 군대이동에 기관차가 대거 차출돼 연착이 잦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에서 北京까지는 30시간 남짓 걸렸다. 압록강을 건널때와 山海關을 지날때 중국측 통관절차는 형식적이었다. 이지방은 이미 일본의 영향속에 들어가 있었다.

北京에가서는 우리와같은 선교사로 세브란스병원 치과의사로 있다가 北京연합 의과대학 치과과장으로 옮겨간 아버지의친구 부츠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방여행을 떠날 참이었다. 우리 부부를 보더니 마침 잘됐다면서 자기집에 묵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北京시내는 두루 관광했으나 近郊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보고 싶었고 계획까지세웠던 만리장성을 가보지 못한것은 지금도 섭섭하다.

서양사람들은 결혼식때 흔히 금반지를 교환한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금을 구할수가 없었다. 한국사람들은 결혼반지를 형편에 따라 여러돈쭝씩 크게 만들기도 하나 우리네 습관은 실반지를 만든다. 그것도 순금이 아니라 14~16금이다. 나는 마침 홍콩에 다녀올일이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결혼반지를 구할수가 있었다. 아내는 나에게줄 반지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해 北京에 신혼여행와서야 나에게 반지를 끼워줄수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후 양가부모, 들러리와 찍은 사진。 신혼여행은 北京으로 떠났으나 아내의 여권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했다.

中國內 旅行統制로 꿈 못이뤄…지금도 서운해

우리들의 北京체류예정은 열흘간이었다. 형식적인 절차이긴해도 일본영사관에 한국재입국비자를 받으러 찾아갔다. 일본영사관은 뜻밖에도 아내의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아내 존·비다·데이비슨은 한국에온후 영국영사관에 근무했으나 결혼을 하게되어 영사관을 그만두었다.

일본영사관측은 외교관여권을 가진 아내가 지금은 영국영사관을 떠났으므로 비자를 내줄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 조회를 하느라 예정보다 닷새를 더 北京에 머물렀다.

당시 국내신문은 이 사건을 알고 갓 결혼한 신부를 객지에 떼놓아야 하느냐고 화제기사로 다루기도했다. 예정에 없던 체류연장으로 곤욕을 치를뻔했으나 부츠박사의 호의로 호텔에 든 기간은 닷새뿐으로 여비걱정은 안해도 되었다. 부츠박사는 굉장한 대머리인데 해볼과 턱수염은 아주 많았고 이를 소담하게 길렀다. 그는『내 머리털은 생산과정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분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주위를 크게 웃겼다.

우리가 北京을 떠날 무렵에는 기차가 없어 이틀인가를 기다려야했다. 만주 우수리강에서 일본과 소련이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틀을 기다려 겨우 기차를 탈수 있었다. 그러나 좌석을 얻지못해 가방위에 앉아왔지만 무사히 한국에 돌아온것만도 다행이었다.

평안북도 宣川역에서 내렸다. 기차가 느릿느릿 달려 서울까지 가려면 하루밤을 더 지내야하는데 견디기가 힘들어 여기서 내린것이다. 宣川역에 내렸을 때는 밤10시께였는데 마침 방공연습을 하느라고 주변이 깜깜했다. 가까스로 지게꾼을 만나 아는 선교사댁을 찾아가니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면서 北京에서 돌아온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MBC 清州·春川에 TV방송국

年内에 新設…自體방송 實施계획

清州와 春川에 MBC TV방송국이 새로선다. 문화방송(MBC)은 현재 중파라디오방송을 하고있는 清州와 春川방송국에 TV국을 연내로 신설하기로 했다. MBC春川방송국은 채널10, 清州방송국은 채널33(UHF)으로 전파를 띄우게된다.

○○○○

지방TV방송망 11개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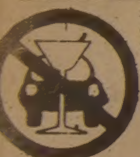
이로써 MBC·TV의지방방송망은 11개로 늘어나게된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지방TV방송국은 KBS의 天安방송국과 함께 3개가되는셈이다. 따라서 KBS 제1TV밖에 시청할수없는 江原·忠北지방일대로 MBC·TV의가시청권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MBC는 이지역에 자체방송도 실시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와함께 9개지역에 FM방송국도 신설할계획이다. 따라서 서울과 釜山뿐인 FM방송망도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MBC는 앞으로 TV방송망을 26개로 늘리고 14개소에 유인중계소, 1백28개소에 간이TV중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

연극예술상 수상자 演協、權成德씨선정

◇權成德

한국연극협회제정 제7회 한국연극예술상 수상자로 연극배우 權成德씨(사진·43·국립극단단원)가 21일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하오4시 실험극장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협회 제21회 정기총회와함께 있을예정.



한국일보 詩壇

겨울 아침

崔暉林

이런 날 누가
이사를 하나
영하 17도의
겨울 아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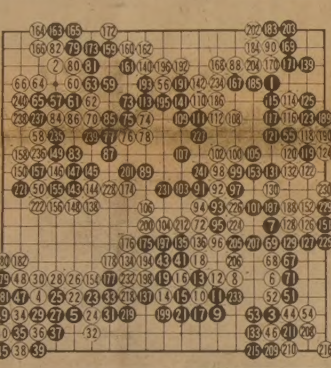
마디마디 저미는
아픈 추위보다
용달차에 실린
초라한 이삿짐이 안쓰러운,

맨션아파트가 즐비한
江邊길을
한 家率의 모두를 싣고、
용달차가 떨며
흔들리며 간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總譜242手完黑9戶半勝 (갈5시간 덤5집반)

白(5段)張秀英〈3勝1敗〉
黑(6段)徐能旭〈1勝3敗〉



이 바둑은 한말로해서 徐6단의 기민하고 과감한면을 보여준 佳作이다. 그리고 白의 초반작전실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보기이기도하다. 다만 줄곧 역경에 헤매면서도 強手를 섞어서하는 張5단의 반격은 볼품만점. 그런뜻에서 흥미로운바둑이었다. 어쨌거나 徐6단은 이로써 3패후에 첫승리를 거두었다. 나머지 2국의 상대는 河燦錫7단과 姜哲民6단. 이중 1국이라도 지면 시드組에서 탈락하고 전승하면 혹시 작년도순위관계로 잔류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타멤버의 성적여하가 문제. 徐6단은 자못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것이다. 한편 張5단은 모처럼 달리던 전승가도에서 돌부리에 채인격인데 남은 상대는 徐奉洙7단(2승1패)과 姜勳4단(3승0패)들로서 도전권을 바라보기가 힘겨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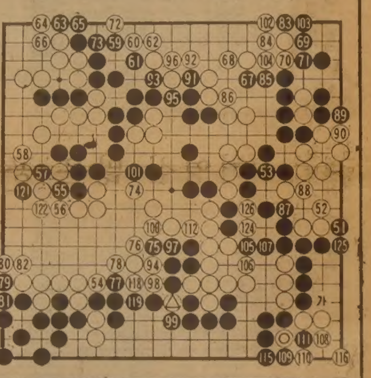
徐6段 첫 승리

예에따라 이바둑을 대충훑어보면, 시초우하귀에서 黑9로 한칸뛴것이 新型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좌하귀를 白22로붙인 급전에서 白30으로 곱게 이은수가 의문이었다. 30은 48의 호구이음이 적절했던 것이다. 또 白34、36의 이단패를 하기전에 白43、194를 선수할시기를 놓치고 역으로 黑41、43을 당한것이 열세를 초래한 원인. 그후 좌상귀쪽의 白60、62가 의문이었고 白70과 黑71을 교환하여 고전이었다. 白은 끝판에 맹공을퍼부었으나 역전의 찬스는 없었다. 20…211。10。42…13。213…14。214…46。217…211。220…46。223…146。소비시간 白=3·10。 黑=2·30。【一凡】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8譜 150~226 (갈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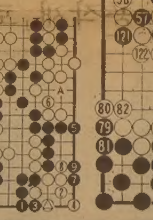
白(5段)張秀英〈3勝〉
黑(6段)徐能旭〈3敗〉



결과부터 말하면 이바둑은 黑의 9집반승으로 종국되었다. 그간 張5단의 추격이 볼만했고 한편黑은 두차례나 이상한수를 두는바람에 결정타를 놓쳤을 뿐아니라 만약 자칫 미세한 국면이었더라면 자칫 역전될 뻔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黑의 문제수는 우선51。물론 이자체는 기분좋은 선수다. 그러나 이환경에서는 악수가 분명하다. 이곳에서는 문제거리였던 우하귀白의 생사관계마저 염두에 두어야했다. 즉白이 참고도처럼 △표에 호구쳐서 패싸움을 피할때黑1로 내려서白2에는黑3에 단수하고 白4때 우변을 다음黑5로 내려서는것이 강수。이것으로黑「A」를 보기때문에 白6은 절대。바로 여기서 黑7、9로 파호하면 우하귀는 무조건 잡게되는 것이다.

黑、위험한 승리



그리고 다음黑53이 의문수. 이수로는 차라리 黑「가」로 막아 잡아두는 편이 정당했다.

이 두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하귀白이 108이하 116의 패를할 찬스가 생겼으니 徐6단으로서는 쾌조의 진군이 주춤한셈이지만 다행히 패감관계로 중앙 黑2점을 잃는데에 그쳤다.

113…△。114…◎。117…111。120…◎。123…111。【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⑦

『사람의 속처럼 모르는건 없다구. 그런 애가 취직만 한줄 알아? 병신육갑한다고 한술 더떠서 글쎄 취직한지 일주일만에 주인여편네 금반지를 훔쳐가지고온데간데없이 없어져 버렸다는거야. 그렇다고 지금 와서 유선생님을 오라가라 난리니 우리보고 금반지값을 물어내라는 거야 뭐야?』

사모님은 수지를 잠깐 그 주인 여편네로 착각을했는지 시비조로 삿대질을 했다.

『그럼 명자가 취직했다는데가 남의 집살이군요? 그렇죠?』

수지는 날카로운소리로 사모님을 추궁했다.

『그래 식모자리야. 그 팔푼이가 그만큼 풀렸으면 됐지 우리보고 더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럼 목이도 식모로 보냈겠군요? 목이도! 아, 어쩌면…』

수지는 불덩이같은 분노가 가슴을 단근질하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들입다 악을 썼다. 그리고 불러선 안될 그 이름을 불러버린 해방감과 그 이름이 그녀를 불의에 관통하면서 남긴 통증때문에 진저리를 쳤다.

사모님의 얼굴에 의혹과 호기심이 스쳤다. 그러나 잠깐동안이었다. 수지는 자기 앞에 별안간 부자가 된 여자, 별안간 비단옷을 휘감고 덕지덕지 화장을 한 여자의 유일한 미덕은 상상력이 빈곤한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목이는 아닐걸』

『확실해요? 그게』

『식모로 간 애는 명자하고 또 한애밖에 없었으니까. 둘다 내 친구 연줄로 내가 시켰어. 그밖엔 다 유선생님이 취직을 시켰고. 목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나이배기고 또 똑똑하니까 잘 됐겠지뭐』

『걘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입검정고시를 준비중이었어요』

『똑똑해도 헛똑똑했지. 오르지못할 나무를 쳐다보누. 참 수지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목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걔가 절 제일 따랐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될성부르기도 했구요』

『될성불러 봤댔자지 뭐. 고아원출신이 어디가』

단한번이었지만 목이의 손목을 잡아준적이 있었다. 가장 나이배기여서 원아라기보다는 보모노릇을 더 많이 하고있었다. 부지런한데 비해 가냘프고 차가운손목이었다. 수지가 그걸 원치않고 또 두려워하고있기때문인지 목이한테서 오목이의 모습을 찾아낼수는 없었다. 실상 수지에게 오목이의 모습이 남아있대도 그건 믿을게 못됐다. 말이 일곱살 다섯살이지만 으로 다섯살 세살을 겨우 넘겼을 무렵이었으니까.

수지에게 남아있는 오목이의 모습은 자귀 난 짐승처럼 배만 잔뜩 부르고 얼굴은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아귀같은 매우 비사실적인 거였다.

그렇다고 목이와 오목이가 전혀 딴사람이라고 단정할수있는 것도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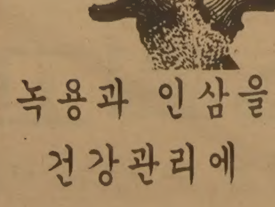
수지는 목이가 오목이인지 아닌지를 반신반의인채로 놓아두길 원했고, 목이의 모습중에 오목이의 모습은 꼭 그녀가 원하는 것만큼만 있었다. 있기도하고 없기도 했다.

목이가 오목이인지 아닌지를 반신반의로 남겨놓고 싶은건, 그게 오목이를 찾고싶은 마음을 위해서도 똑같이 찾기싫은 마음을 위해서도 똑같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상반된 두개의 마음에 똑같이 희망을 주었다.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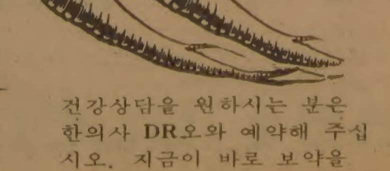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반광고 : 최성조
● 매매구인광고 : 박경옥
533—2361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朴尙恩양 殺害사건」鄭군관련에 檢察、12가지 證據제시

叔母、어머니에 "電話걸었다"말해
鄭君이 그린 死體유기略圖 정확

朴양T셔츠에 血痕、직접證據
검찰、"公訴維持에 별문제없다"

검찰은 26일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진범으로 구속된 鄭載巳군(21·I공대3년)에 대한 살인、사체유기、절도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지검고위당국자는 이날 朴양사건은 그간 범인으로 몰렸던 張慶秀군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합리적이고 임의성있는 재조사로 진범을 찾아낸 수사의 특수성자체가 이미 움직일수없는 증거의 하나가 된다고 밝히고『물증인 朴양의사체와 임의성있는 자유분위기에서 검사가작성한 鄭군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만으로도 공소유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최근 사건결과가 발표된후 일부여론이 물증이없다는점을 우려하고있으나 이것은 이사건수사가앞서의 尹景花여인 피살사건과는근본적으로 수사방법이나 수사배경이 다르다는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데서오는 오해라고 분석하고 현재 검찰이확보하고있는 증거는 朴양의혈흔이남은 鄭군자동차의 시트커버와 朴양의 T셔츠등을증거외에 12개의 간접(정황)증거가있다고 밝혔다。

검찰에의하면 12개의 정황증거는 ①鄭군의숙모 張씨(31)가 朴양집에 대신전화를 해주었다고 鄭군의 어머니에게 직접말한사실 ②鄭군이 검사앞에서그린 사체유기장소(三成洞) 부근약도의정확성 ③사건직후인 9월23일 새자동차시트커버를 만들어준 신진자동차커버사의 영수증 ④鄭군의아버지회사의 운전기사 文智永씨의 시트커버교환에 관련된 진술 ⑤鄭군이 어머니와 대면했을때『사실대로 털어놓고 刑이나 적게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점과 鄭군의 자백녹음을 들은 鄭군의 어머니가『내아들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라고 주장한 사실 ⑥朴양이 피살된후 학교에서 간 내장산수학여행에 참가치않고 부산에내려가 朴양의 학교(부산산업여대)부근을 배회했던사실 ⑦朴양의 오빠집전화번호와 피살당시 입은 朴양의 옷에대한 鄭군의 거짓탐지기 양성반응 ⑧三成洞 사건 현장과 鄭군의 집간의사이가 1㎞인데다 외진길이어서 오너드라이버인 鄭군이 차량을 범행에 사용할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⑨朴양이 묻혀있는 현장을다시둘러보고 밤11시에 귀가했을때 현관문을 어머니가열어주었다는사실 ⑩미국후 귀국、朴양과 3각연애관계로 심한갈등을 느껴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것으로 볼수있는점 ⑪鄭군의 초기검찰진술이 불합리하고 서로엇갈리고있는점 ⑫그뒤 부모와의 대질신문에서 범행을 시인한사실등이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검찰은 鄭군가족들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려하고있지만 진술에 모순이있는사실도 지적했다。

▲鄭군의 부모들은 鄭군이 매일상오6시에 가족과 함께 국민체조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鄭군은 상오8시~8시30분에 일어난다고 진술、2시간이상의 차이가있으며 ▲사건당일 밤9시부터 아들이집에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날밤 鄭군의승용차가 집에없었다는점에대해서 설명을하지못하고있는 점등도 지적하고있다。

한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鄭군의 정신감정을 의뢰、범행전과 범행후의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해 이를 보강증거로 삼을것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鄭군이 구속되기전 4차례에 걸쳐 범행과 동일한 시각에 현장답사를 마쳤으므로 현재의 증거만으로도 기소엔 충분하다고 판단、당분간 현장검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鄭군은 지난24일 城東구치소 미결감에 수감된뒤 검찰의요청에 의해 일체 접견이 금지돼있는데 검찰은필요하다고 인정될때까지 계속 접촉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李原一부장검사、趙炳吉검사등은 구속뒤 鄭군을 만나지않았으나『鄭군이 식사도 잘하며 아무런 문제행동을 하지않고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제시증거

구분	내용
직접증거	①鄭군의 검찰에서의 임의성있는자백
	②자동차시트·커버 혈흔과 朴양T셔츠혈흔(O형)
간접(정황)증거	①朴양에게 전화해줬다고 鄭군숙모가 鄭군 어머니에게 밝힘
	②鄭군이 그린 사체유기장소부근(三成洞)약도의정확성
	③신진자동차 커버社가 발급한 영수증(사건후인지난해 9월23일자)
	④鄭군아버지회사 운전기사 文씨의진술
	⑤鄭군과 대면후 어머니李씨가「아들의 죄는 폭행치사」라고 주장했고鄭군은 이때「사실대로 털어놓고 刑적게 받게해달라」고 말한점
	⑥鄭군 학교수학여행 가지않고 釜山으로 내려가 朴양학교(산업여대) 부근 배회한 점
	⑦거짓말탐지기 양성반응(朴양 오빠집 전화번호와 朴양의 옷에 대해)
	⑧차량동원 가능성과 鄭군 직접운전사실확인
	⑨검찰에서 어머니 李씨「내가 사건당일 (지난해 9월18일밤11시) 대문 열어줬다」시인
	⑩美연수에서 귀국후 鄭군, 朴양에게갈등느낀 범행동기
	⑪鄭군 검찰진술의 불합리성과 엇갈리는점
	⑫부모와의 대면에서 鄭군 범행시인

◇작년7월 미국연수여행중 鄭載巳군과 朴尙恩양의 다정했던모습。이들은 張慶秀군등 다른대학생 29명과함께 1개월간 미국을 다녀왔고 귀국후에도 자주어울렸다。

딸가진 父母 "누가 硏修보내겠나"

—海外硏修중의 鄭군과 朴양

샌프란시스코 觀光갈때 가까워져
돈빌리려다 거절당해 사이멀어져
12개大男17명·女14명과 같은一行

상경여대생 朴尙恩양의살해진범은 잡고보니 용의자로 몰렸던 張모군과 마찬가지로 朴양과 미국연수를 함께하고 온 연수동기생 鄭載巳군이었다。이 우연치않은사실은 관계자3인이 모두 부유층의자녀들로 한달남짓한 해외연수기간중 복잡한 애정관계에얽히는등 학생신분을 넘는 행동들을 한것을 의미해 다시한번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이에대해 많은 학생들은 위화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으며 딸을둔 가정에서는『이런풍토에서 어떻게 해외연수를 보낼수 있겠느냐』면서 탄식하고있다。

물론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모두그런것은 아니지만 1、2차등 먼저다녀온 학생들중 상당수가 건전한 해외연수를 외면、관광연수를 했다는것은 사실이다。

朴양과 鄭군、그리고 이번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張慶秀군등이 해외연수를 떠난것은 제2차로 지난해7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였다。

7142회로 불리는 2차팀은 남자 17명、여자 14명으로 高大7명、延大4명등 12개대학 학생들로 부산산업대생도 朴양을포함 2명이끼었고 모재벌회사의 막내동생과 자매끼리 같이간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연수비 1백54만원외에 용돈으로 평균1인당1천달러(70만원)씩갖고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마자 고속버스로 6시간을달려 애스터카네로市에 도착、제각기 흩어져 근교의 미국인집에서 민박을 시작했다。

일과는 상오에는 시내의한 교회에서 영어교육을 받았고 하오에는 고교운동장등을 빌어 배구·야구등을 했다。

또 토·일요일에는 민박가족과 함께 근교로 놀러가거나 자동차경주、영화등을 보며 미국의 풍습등을배웠다。

4주간의 연수기간중에 연수생 모두가 2일간 샌프란시스코를 관광했는데 이때일부 남녀간에 서로가까와졌다는것。

한 학생은 朴양이 샌프란시스코 관광때 갈때는 鄭군옆에앉았다가 올때는 張군옆에 앉았다는것。

또학생들은 대부분 갖고갔던 1천달러를 모두 써 鄭군과 朴양의 경우 용돈이 떨어질정도였다는것。

이즈음 朴양은 집으로부터 다시 1천달러를 송금받았는데 鄭군이 빌려달라고했지만 거절당해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진것같다고 말했다。

결국 鄭군은 Y大金모군으로부터 50달러를 빌었다。

이들은 8월12일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3일동안 디즈닐랜드 할리우드등을 돌아보고 귀국길에 올라 하와이에서 2일동안 민속촌、와이키키해변등을 관광하고 귀국했다。

H모군(25·K大4년)은『지리한 여행길에서 남녀가 짝이되어 동석하는경우는 더러있었고 관광지에서 사진을 같이 찍는예는 있었다』고말하고『외국에서 길을 잃을까봐 술을마시러 이탈하는 개별행동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政】

가장 뜻깊은날이다
張군 26일生日맞아

朴尙恩양피살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서 곤욕을치렀던 張慶秀군(22·K大3년)이 大邱에서 구정을쇤뒤 25일밤10시 아버지 張沐熹씨(49)와 함께 상경、26일 21번째생일을맞아『가장 뜻깊은 생일이됐다』면서『이제 악몽같은 나날을잊고 편안히 잘수있게됐다』고 말했다。

張군은 25일 검찰의 발표를듣고 東部지청 趙炳吉검사에게 전화를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했는데 금명간 검찰을찾아가 감사의 인사를할 예정이다。

팝토픽

캐시박스頂上지켜 「I can't …」1位

★…대릴·홀과 존·오츠의 「I can't …」가 지난주에이어 美國 싱글 레코드의 톱을 지키고있다。

캐시박스가 선정한 이번주 팝 톱 텐은 또 지난 8주동안 1위를 고수하다 2위로 밀려난 피지컬을 포함、대부분 새로 랭크된 곡은 1곡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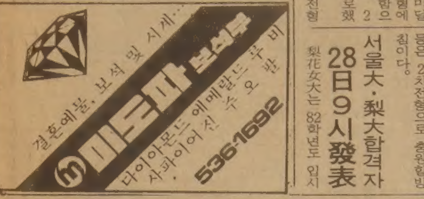
10위권에 새로 랭크된 곡은 스티비·닉스등이 부른 「Leather & Lace」。한편 컨트리·웨스턴 싱글의 톱은 지난주 2위였던 콘웨이·트위티의 「Red Neckin' Love Makin' Night」가올랐다。【AP】

매커트니·위네트등 40代스타들 猛活躍

★…무하마드·알리는『나이는 실제보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한 적이있다。이말을 입증이라도하듯 최근들어 미 팝계에 40대의 스타들이 맹활약을 하고있다。

◇캐시박스선정 이번주 텐 톱 팝
(괄호안은 지난주 순위)

①(1)=I can't go for that(대릴·홀 & 존·오츠)
②(2)=Physical(올리비어뉴튼존)
③(6)=Center-Fold(J.게일스밴드)
④(3)=Waiting for a girl like you(포리너)
⑤(4)=Let's groove(어드·윈드 & 파이어)
⑥(7)=Harden my heart(퀴터·플래시)
⑦(8)=Turn your love around(조지·벤슨)
⑧(9)=Trouble(린드세이·버킹검)
⑨(10)=Comin' in & out of your life(바브러·스트라이샌드)
⑩(11)=Leather & lace(스티비·닉스 & 돈·헨리) 【AP】



名門大、2차 銓衡안해

서울大·延大·西江大·梨大확정 2·3志望으로 充員
建國大·慶熙大·漢陽大는 2次銓衡

82학년도 전기전형에서 입학정원미달인 대학중 서울大、延世大、西江大、梨花女大등은 2차전형을 하지않기로했다。

이들대학들은 26일 미달학과및 미달계열은 2、3지망으로 입학인원이 대부분 채워졌고 일부학과에 부족인원이 있었으나 졸업정원은 모두초과했기때문에 2차전형을 하지않고 그대로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大의경우 11개 미달학과중 2、3지망으로도 충원이 안된학과는 국악과、농가정과뿐이고 입학인원 70%에 도못미쳤던자연Ⅰ계열도 2、3지망으로 모두충원이 된것으로 알려졌다。19개학과중 12개학과에 정원미달이었던 西江大는 2、3지망으로 충원결과 경제·경영·국문·사학과등 4개학과에 모두1백24명의 결원이 생긴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西江大의 82학년도 총입학인원은졸업정원 1천3백60명을 21%초과한 1천6백42명이됐다。

또 延大·梨大도 면접미달학과가 있었으나 1차전형에서 2、3지망으로 충원함으로써 미달학과가 해소돼 2차전형은 실시하지 않기로했다。

그러나 高麗大는 2차전형여부를 27일중에 결정할방침이며 建國大、慶熙大、漢陽大등은 2차전형으로 충원할방침이다。

서울大·梨大합격자 28日9시發表

梨花女大는 82학년도 입시합격자를 당초예정대로 28일상오9시 발표키로했으며 27일 발표 예정이던 서울大도 사정작업이 늦어져 28일 상오에 발표키로 했다。

장거리普通列車 승객에 2월부터 座席指定

보통열차의 좌석지정 판매제가 2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된다。

철도청은 26일 경부·호남·전라·중앙선의 장거리 보통열차 시발역인 龍山·淸凉里·釜山·釜山鎭·光州·木浦·麗水등 7개역에서 보통열차 승객중 1백50㎞이상 여행하는 장거리 승객에한해 좌석을 지정、판매키로했다。

대상열차는 ▲龍山—釜山간 1왕복 2개열차 ▲龍山—釜山鎭간1왕복2개열차 ▲龍山—木浦간 2왕복 4개열차 ▲龍山—光州간1왕복 2개열차 ▲龍山—麗水간1왕복 2개열차 ▲淸凉里—釜山간1왕복 2개열차등 모두 14개열차다。

철도청은 오는 3월1일부터는 시설과 인력을 보강、개시발역외에 전국의 보통열차 정차역 2백96개소에서도 좌석지정제를 확대 실시할예정이다。

6旬할머니 中共서 歸國 38년만에 아들과 再會

【光州=黙】日帝때 中共땅에 건너가 살던 6순의 할머니가 40년만에 귀국、꿈에도 그리던 아들과 다시만났다。(사진)

中共遼寧省에서 살아온 趙福順할머니(67)가 지난14일 38년만에 큰아들李廷模씨(48·光州市北區林洞92의70)와 감격적으로 재회、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고있다。

趙할머니는 전남康津郡岩面에서 남편 李權帝씨(70년사망)와 결혼、지난 1940년 中共으로 일자리를찾아나선 남편을 따라 큰아들李씨와 함께 中共땅으로 떠났었다。

中共遼寧省에 정착、자동차부속상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한 趙할머니가족은 이국의 외로움을 달래며 열심히 살았다。

해방직전인 45년봄 李씨는 당시 전남海南서 포목상을 하던 외삼촌을 따라 귀국했고 몇달뒤 해방을 맞으면서 中共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했다。

"진정한 내 祖國을 찾았다"

金용준氏、歸順환영만찬회서 感激의 答辭
鄭洛賢씨등 30여歸順용사 參席축하

지난7일 휴전선을넘어 월남귀순한 김용준씨(31)를 위한 환영만찬회가 26일 하오6시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열렸다。

鄭洛賢대령、李弼殷대령、金新朝씨등 30여명의 귀순용사와 이북5도청 함북도지사 金東石씨등이 참석한 이날환영만찬에서 귀순용사대표 洪淳元씨(53·부라더미싱판매주식회사대표)는 환영사를통해『인간의 자유는 목숨보다도 더귀중한것』이라고 전제、『자유대한의 품에서 참다운 인생을 새로 출발하게된 김용준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을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씨는 인사말을 통해『북녘땅에서 자유를 찾아온 선배님들의 자유롭고 풍요한모습에 마음속깊이 반가움과 감격스러움을억제할수없다』면서『그간 하루 하루 자유의 소중함을 절감하며 이곳 자유대한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조국임을 확신하게됐다』고 말했다。

即審피의자 숨져

보호실 入口계단서 굴러

23일하오8시55분께 서울麻浦경찰서 즉심피의자보호실입구에서 즉심피의자 朱幸岩씨(29·공원·서울麻浦區新孔德洞2의525)가 4·5m아래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뇌진탕을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받았으나 25일밤10시께 숨졌다。

朱씨는 이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麻浦경찰서 新德파출소에 경범피의자인 吳모씨(27·회사원)와 함께 연행됐는데 이들을 데리고온 新德파출소소속 張모순경이 상황실로보고하러간 사이 지하1층의보호실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 서있다가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것。

소 잃고 난후 외양깐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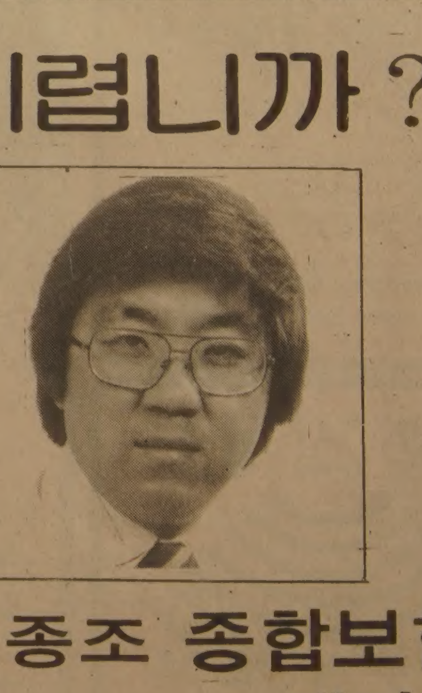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아빠, 전 뭐가 뭔지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갈준비하고…"

"대학에선 인생을 준비한다면 말예요…"

"인생을 살면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거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걸"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李蓮珠 여고5百m 大會新

江原도민氷上大會 폐막

【春川=聯合】제17회 江原도민 동계빙상대회가 23·24양일간 春川孔之川과 春城생활특설링크에서 초·중·고·대학및 일반부등 1백8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가대표인 李蓮珠(유봉여고)는 여고5백m에서 47초38로 우승, 대회신기록(종전47초81)을 수립했다.

한국女子, 單·複式도 우승

西獨오픈卓球 團體戰 이어 3부문 席卷

安海淑, 네메스에 完勝

安海淑·黃男淑組 헝가리組 눌러

【킬(西獨) 24日外信=聯合】西獨 킬에서 열린 제30회西獨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 韓國여자탁구팀은 23일 단체전에서 우승한데 이어 24일 단식과 복식에서도 우승함으로써 여자3개부문을 석권했다.

中共이 불참한가운데 열린 이번대회 여단식결승서 安海淑은 루마니아의 올가·네메스를 21-5, 21-9, 21-17로 완파했으며 복식결승서는 安海淑·黃男淑組가 헝가리의 주더트·마고스, 가브리엘라·스자보組를 21-14, 21-17, 21-17로 꺾고 승리했다.

한편 남자단식결승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요제프·드보라체크가 같은 체코人 밀란·오를로프스키를 3-0으로 물리쳐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복식에서는 英國의 디스먼드·더글러스와 폴·데이가 스웨덴의 미카엘·아펠그렌과 에릭·린드를 3-1로 누르고 승리했다.

◇결승전적

▲여자단식

安海淑 3 (21-17 21-9 21-5) 0 올가·네메스

▲여자복식

黃男淑·安海淑 3 (21-17 21-17 21-14) 0 주디트·마고스, 가브리엘라·스자보

▲남자단식

드보라체크 3-0 오를로프스키

▲남자복식

더글러스·폴·데이 3-1 아펠그렌·에릭·린드

林殷珠 14위차지

2시간47분3초로, 崔敬子 33위

日女子마라톤

【大阪24日UPI=聯合】韓國의 林殷珠(조폐공사)선수는 24일 日本의 오오사까(大阪)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여자마라톤대회에 처음출전해 2시간47분3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14위를 차지했다.

1백60명의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인 42.195㎞풀코스의 마라톤대회에서 지난81년11월 朝鮮日報마라톤대회때 세워진 한국신기록(3시간16초)을 13분13초 앞당기는데 성공했으나 외국선수들의 강인한 체력에 밀려 1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崔敬子(산업기지)선수는 3시간5분7초의 기록으로 3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林殷珠선수의 기록은 동양선수로서는 이날 11위를 차지한 日本의 사사끼·나나에(2시간42분9초)에 이어 두번째의 기록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은 예상을 뒤엎고 2시간32분55초의 좋은기록을 보인 이탈리아의 신예 리타·마르키시오에 돌아갔으며 우승이 기대되던 79·80년 도오꾜여자마라톤대회의 패권자 조이스·스미드여사(42·英)와 노르웨이의 잉그리드·크리스티안센은 각각 2시간35분34초와 2시간36분33초의 기록으로 5, 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 적

①마르키시오(伊)=2시간32분55초 ②베우르스켄즈(和)=2시간34분14초 ③발렌시크(西獨)=2시간34분42초 ④로라·드윌드(美)=2시간34분59초 ⑤스미드(英)=2시간35분34초 ⑧크리스티안센(노르웨이)=2시간36분33초 ⑪사사끼(日)=2시간42분9초 ⑭林殷珠(韓)=2시간47분3초 ㉝崔敬子(韓)=3시간5분7초

사진기자단 취재복 코오롱스포츠 기증

한국사진기자단(단장宋鎬俊)은 코오롱 스포츠에서기증받은 취재복을 전국사진기자들에게 지급, 27일 열리는 제63회 동계체전부터 이를착용, 취재에 임하기로 했다.

MBC 靑龍 어제 創團式

프로야구 MBC靑龍이 26일 상오 MBC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두번째 프로구단으로 출발했다. 이날 창단식에도 韓國야구위원회(KBO) 徐鍾喆총재등 KBO임원과 각 구단관계자 MBC임직원등이 참석했다.

MBC靑龍팀 주장 李鍾道(第一銀)등 22명의 선수들은 MBC인기탤런트와 코미디언들이 주는 화환을 목에 걸고 필승을 다짐했다.

◇MBC靑龍야구단

▲단장=趙光植 ▲감독=白仁天 ▲부장=孫永植 ▲코치=李在煥 ▲투수=河基龍(商銀)鄭淳明(韓化)李吉煥(延世大)柳鍾兼(第一銀)金時哲(浦鐵)金正鎬(韓一銀)李光權(韓電)車濟學(롯데) ▲포수=申彦皓(經理團)崔正基(롯데)柳承安(韓一銀)金容雲(韓電) ▲내야수=金龍達(韓電)朴在天(星武)金仁植·鄭永基(이상롯데)金容允(農協) ▲외야수=李鍾道(第一銀)崔正雨(韓電)宋榮雲(農協)金奉起·裵壽熙(이상 롯데)

서울마라톤 3월28일開催

外國마라토너 50여명초청

美로저스·濠체틀등 男12 女子8명 이미수락

陸聯, 陸上진흥위해 88년까지 62億투입

◇張翼龍 陸聯회장

張翼龍 대한 육상경기 연맹회장은 26일 금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때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62억원을 투입, 육상진흥책을 펴는한편 마라톤 중흥을 위해 3월28일 제1회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칭)를 열겠다고 밝혔다. 張회장은 금년 예산 7억원을 비롯, 매년 예산액을 늘려 88년까지 모두 62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가운데는 국제 마라톤 대회 경비로 매년 투입될 찬조금 3억원과 각종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있다.

張회장은 서울국제 마라톤대회 개최에대해 아직 공식명칭과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회를연다는 원칙은 확정되었으며 이대회에는 외국의 초청마라토너 50여명, 주한외국인 1백여명, 일반외국인 1백50명, 국내선수등 1천3백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대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육상연맹이 교섭을벌여 초청수락을 받은선수는 2시간 9분27초의 기록을가진 빌·로저스(미국), 2시간10분의 로돌포·고메스(멕시코) 체틀(호주) 마르크·스메(벨기에) 등 남자12명과 여자마라톤 세계기록보유자 앨리슨·로(뉴질랜드)등 여자8명등 모두20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국제 마라톤코스는 코스 측정은 끝냈지만 확정되지않았다고 張회장은 말했다.

張회장은 이밖에도 사무국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2원화하는 신집행부를 발표했으며 국가대표 상근코치제, 외국지도자초청, 지도자해외연수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명단

▲회장=張翼龍 ▲부회장=徐潤福(전무겸임)金鍾錫、金昌根 ▲경기=韓泰奉 ▲심판=金榮泰 ▲기술지도=元鍾世 ▲선수강화=孫慶守 ▲시설=金容德 ▲마라톤=咸基鎔 ▲신인발굴=崔喬七 ▲국제=兪賢濬 ▲이사=朴敏淳 ▲감사=鄭日東、崔相弘 ▲사무국장=金海龍

올림픽 分科委구성

농구협회

대한 농구협회는 26일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열고 金永基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분과위원회와 상근집행부를 구성했다.

◇상집명단

▲전무=邊勝睦 ▲기획출판=吳廣樹 ▲총무=鄭周鉉 ▲재무=金武鉉 ▲경기=金世勳 ▲기술=方烈 ▲섭외=李仁杓 ▲올림픽대책=金永基 ▲보급위원=文世榮

페드로사·산체스 對決추진

페더級 통합타이틀戰 개런티 百萬弗씩

◇페드로사

◇산체스

프로복싱 세계 페더급 타이틀을 놓고 WBA(세계권투협회)챔피언인 에우세비오·페드로사(파나마)와 WBC(세계권투평의회)챔피언 살바돌·산체스(멕시코)가 곧 대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권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페드로사—산체스간의 빅게임이 실현되면 마빈·해글러(미들급)와 슈거·레이·레너드(웰터급)에 이어 세번째로 WBA·WBC통합 챔피언이 탄생하게된다.

페드로사—산체스 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흥행사는 톱·랭크社의 보브·애럼씨로 대전에 응할 경우 두선수에게 각각 1백만달러(약7억원)의 개런티를 주겠다고 제의 했다.

80년 7월 내한하여 金嗣王을 8회에 KO 시킨바 있는 페드로사는 최근 후안·라포트(미국)의 도전을 판정으로 뿌리쳐 페더급 최다방어기록인 타이틀 14차방어에 성공, 화제를 만들어냈다.

올해 29살의 페드로사는 78년4월 세실리아·라스트라를 13회에 KO로 물리치고 타이틀을 차지한이후 최근19연속 승리를 기록하고있다.

한편 WBC 챔피언 산체스는 지난해 연속KO왕 윌프레도·고메즈(푸에르토리코)에게 극적인 KO승을거두어 일약 스타로 등장한 선수.

24살의 산체스는 75년에 프로로 전향, 18연승(12KO)의 기록을 세워 유망주로 주목을 끌었으며 80년 2월 강타자 대니·로페즈(미국)에게 도전, 예상을뒤엎고 KO승을 거두면서 王座에 올랐다.

國體 冬季빙상 開幕

오늘부터 사흘간, 8백16명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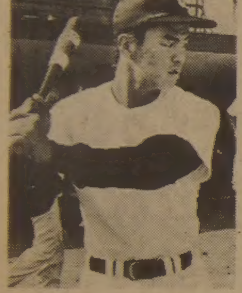
제63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가 27일 泰陵국제스케이트장서 개막,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등 3종목의 기량을겨루는 이번동계체전에는 총8백16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충북 인천 경북 캐나다 동포팀등 8개 시도 팀이 참가한다.

한편 동계체전사상 처음으로 실내경기장인 서울스포츠센터서 폐회식을 갖는다.

◇경기일정

▲27일=개회식(11시)스피드(12시·이상泰陵스케이트장)피겨(7시)아이스하키(10시반·이상동대문실내링크) ▲28일=스피드(9시·泰陵스케이트장)피겨(8시)아이스하키(12시10분·이상동대문실내링크) ▲29일=스피드(9시·泰陵스케이트장)피겨(9시)아이스하키(11시40분)폐회식(5시·이상동대문실내링크)



金義明 1軍기용 확실시

近鐵팀 연습타격서 홈런

日本프로야구 긴데쓰(近鐵)팀에입단한 재일동포 金義明은 지난20일 후지이데라(藤井寺)구장에서 실시된 연습타격에서 첫홈런을기록, 강타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1軍에 등용될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실시된 3루수 수비연습에서도 무난히 합격점을 얻어낸 金은 이날 첫 급료로 20만엔(韓貨60만원)을 받고 쾌타를연발, 세끼구찌(關口)감독으로부터 『1군선수로 기용해도 잘해낼것』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金은 이날 피칭머신(투수연습기)을 상대로한 연습에서 65타를 기록했는데 40구째에 홈런을 날렸다.

韓日프로야구 協定

3월중에 체결될듯

徐鍾喆韓國야구위원회총재는 오는3월26일 서울에서 시모다(下田) 日本프로야구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장학의 밤

SHOW · DINNER · DANCING

인사말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번영이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안에서 보다 행복스러운 내일을 가져오기 위하여 잠못자고 뼈저리게 일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인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큰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1세의 힘만으로는 제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장학재단은 카나다의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인사회가 하루속히 오게하기위하여, 우리 자녀를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반면 우리들은 한국에서 정말 돈이 없어 공부못하는 어려운 학생들도 잊지않고 있읍니다. 이들을 위하여도 장학재단은 힘자라는대로 장학금을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업을 여러분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장학기금을 모으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장학의 밤 행사를 마련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입장료는 비용을 제하고는 1센트까지 장학사업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장학 사업을 돕는 마음으로 또 일하는 저이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뜻으로 장학의 밤에 꼭 참여하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이사장 구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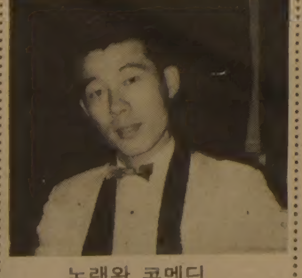
연락처:

789-7544 문 인 식

239-2193 강 공 선

"밤안개의 주인공

현미 특별출연"



노래와 코메디
양 철

아라비아 춤
PRINCESS NATOMA

쌍둥이 무용
DUFFY BROTHERS

경품내역

서울왕복비행기표 한국여행사
OMEGA손목시계 미도파백화점
벽시계($100) 영리무역
50 lbs "국보"백미2포 고려식품
NORTH YORK CHEV OLDS COUPON($100)
기념품($100) 스타미용실

(접수되는대로 추가 발표)

기증품내역

연예인 왕복비행기표 신의상사
연예인 왕복비행기표 ORIENTAL PALACE

5인조 한국인 밴드와 기타 연예인 다수 찬조출연!

일시: 1982년2월27일(토)오후6시30분
장소: DOWNTOWN HOLIDAY INN(토론토시청뒤)
회비: 1인당 $30(Ticket시내 각식품점판매) 뒤)

※ 당일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주최: 카나다한인장학재단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색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 3520, 630−8491

구 인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시간 : 오후4시~12시, 밤12시~오전8시
(FULL 타임)

그리고 도나스 가게를 맡아서 일하실 부부원함
☎ : 531−2689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 : 431−7168

개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실분 급구
가능하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환영
☎ : 537−0208 박(아침9시~밤10시까지)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 767−0762

입주하셔서 애기(2년반)보아주실분 구함.
(더프린 × 스틸)
☎ : 669−5784

입주하셔서 네살난 아이와 1살난 아이 봐주실분 구합니다.
☎ : 242−2064(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아이들(4살, 2살반) 보아주실분
연락바람(서부지역)
☎ : 678−2651

매매및 양도

수입이 좋은 상점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그로서리 가게 매매
조그마한 가게를 원하시는분 연락바람.
61메인 스트리트 ☎ : 694−7848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654−7010(Mr. Pucci)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세탁소 매매
스카보로지역 오전9 : 00~오후3 : 00
☎ : 751−7615

* 그로서리·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땅콩들,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쉽게 번창할수 있는것임.
연매상 : $170,000
크 기 : 대강 1800 Sq.f.
아스킹 : $24,000+스탁
리 스 : 5년+옵션5년
☎ : 425−1255

해밀튼 아파트 조밀지역에 전망좋은 과일가게를 개인사정으로 매매코자함.
☎ : 1−525−1326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최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3−298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매매 부동산

록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이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65 넘파·김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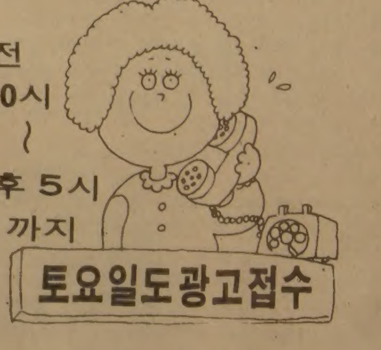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416)533~2361~4

風雅와 策謀 ㉔

이렇게 해서 히데쓰구는 자기가 용자(勇者)란 착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자기자신 살육의 맛을 보아야겠다고 나섰다.

밤이 되면 거리로 나가 어둠 속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들어 베었다. 옆에서 베고, 정면에서 베고, 뒤에서 베고 하는 짓을 되풀이 하다간 오랜만에 여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싶다면서 다음다음으로 사람을 베어 죽였다. 맹인(盲人)은 어떻게 죽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어느날 맹인을 죽여보기로 했다. 공교롭게 기다노텐진(北野天神) 부근에서 저편으로부터 걸어오는 맹인을 만났다.

『맹인』

히데쓰구가 불렀다.

『누구신가요』

『한잔 사줄테니 이리로 오게』

하고 히데쓰구가 맹인의 손을 잡았다.

『고마운 분이시군요』

하며 맹인이 따라왔다. 그 다음 순간 히데쓰구는 허리를 틀며 맹인의 한쪽 팔을 베어 떨어뜨렸다. 히데쓰구의 경험으로는 눈 뜬 사람이면 그 충격으로 기절하는 것인데 맹인은 그렇지 않았다.

석자쯤 뛰어오르며 엄청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근처에 사람이 없소? 나쁜 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오. 사람들이여 날 살려주오…』

『맹인은 또 다른 맛이 있군』

히데쓰구가 말하자, 언제나 이런 살생(殺生)에 수행하고 있던 구마가이(熊谷)란 자가 히데쓰구의 흉을 돌볼 셈으로 맹인 가까이에 가서

『야 네 팔은 떨어져 나가고 피는 샘 솟듯 흐르고 있다』

며, 그 사실을 알면 맹인이 기절할 것이라고 기대했

는데 맹인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고개를 갸웃하며 침착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음 알았다. 이 하수인은 필경 매일밤 이 근처에 나타난다는 살생관백(殺生關白)이지? 틀림이 없다』

구마가이가 말했다.

『넌 맹인이다. 그런데다 한팔을 잃었다. 이중의 병신이다. 그래 묻겠는데 그래도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다』

고 맹인은 고함을 질렀다.

『자아 죽여라 죽여. 근처에서 술렁대는 소리가 나는데 인근의 사람들이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는 증거겠지.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리고 네놈의 사악한 이름을 후세에 남겨 인과의 벌을 받아라』

히데쓰구는 분통을 터뜨려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너무 흥분했기 때문인지 목을 베지 못하고 어깨의 뼈를 다쳤다. 이 때문에 맹인은 땅바닥에 뒹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히데쓰구의 칼은 자꾸만 목표물에서 빗나가 얼굴을 치고, 살을 치고, 허리를 찌르고, 이빨을 때리고, 손을 베고, 손가락을 베어 인간의 형태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만들고나서야 겨우 맹인의 숨을 끊었다.

히데쓰구가 이런 밤 장난을 시작한 이래의 대작업이었다.

『맹인처럼 재미 있는건 없다』

고 가쁜 숨을 쉬며 히데쓰구는 말했지만 지쳐서 걸음걸이가 시들어 호종하는 놈이 뒤에서 받쳐주어야만했다.

그날 밤 돌아가서 히데쓰구는

『공경들 사이엔 이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을거라』

하고 배석한 여자에게 뽐냈다.

流星의 賊
<29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중 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